

AI가 화면 밖으로 나온다!

반도체·센서·로봇이 만드는 Physical AI 투자지도

Physical AI Industry

핀릿 리서치센터 | 2026년 6월 15일
finlit@finlit.co.kr 6953-5579

CONTENTS

Summary	2
[산업분석]	
I. Global Physical AI Robots Market 정의 및 전망	3
II. Global Humanoid AI Robots Market 정의 및 전망	11
III. Global Physical & Humanoid AI Robots 밸류체인 및 주요 종목	16
[기업분석]	
• 삼성전자(005930) : 삼성전자, 로봇 시대의 진짜 두뇌를 쥔 기업	25
• 삼성전기(009150) : 로봇 시대의 눈과 관절을 잡은 진짜 부품 대장주	26
• 삼성 SDI(006400) : 배터리주가 아니라 로봇 심장주로 봐야 하는 이유	27
•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 적자 로봇주인가, 삼성의 미래 병기인가?	28
• SK 하이닉스(000660) : AI 로봇 시대의 진짜 대장 SK 하이닉스!	29
• LG 전자(066570) : 엔비디아가 찍은 로봇 동맹 LG 전자	30
• LG 이노텍(011070) : 기판 증설 순간 다 팔리는 회사 LG 이노텍	31
• LG 씨엔에스(064400) : 로봇을 굴리는 AI 관제 대장주 LG 씨엔에스	32
• 현대모비스(012330) :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완전 변신한다	33
• 현대오토에버(307950) :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뒤의 진짜 수혜주는 이곳	34
• 현대무비스(319400) : 로봇보다 먼저 깔리는 자동화 대장주 현대무비스	35
• 두산로보틱스(454910) : 엔비디아가 찍은 두산로보틱스 반전주	36
• RFHIC(218410) : 로봇 시대 RF 전력과 반도체 장비 수혜주	37
• 에스비비테크(389500) : 휴머노이드 관절주, 이제 감속기가 본 게임	38
• 센서뷰(321370) : 로봇의 눈과 통신선을 동시에 잡은 센서뷰	39

[Global Physical & Humanoid AI Robots 시장 및 관심 종목 Summary]

Physical AI로봇은 생성형 AI가 현실 세계로 확장된 산업으로, 로봇이 스스로 인식·판단·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장은 2025년 814억달러에서 2035년 1조 1,45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휴머노이드 AI 로봇 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50.6%의 초고성장이 예상된다.

성장 동력은 노동력 부족, AI 반도체, 멀티모달 AI, 배터리 기술 발전이다. 투자 관점에서는 완성 로봇보다 AI 반도체, 센서, 액추에이터, 배터리, 로봇 운영체제(Robot OS), 플랫폼 기업 중심 접근이 유효하며,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AI 플랫폼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Physical & Humanoid AI Robots 핵심 관심 종목은 밸류체인 내 지배력과 실적 연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관심 종목은 아래와 같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AI 연산과 메모리를 담당하는 로봇 두뇌 수혜주이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카메라·MLCC·기판을 공급하는 센서 핵심주이다. 삼성SDI는 휴머노이드 배터리 고도화의 직접 수혜가 기대된다.

또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이며,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기반의 상용화 선두주자다. LG 전자는 엔비디아·베어로보틱스 연계 전략으로 로봇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트모버는 자율주행·제어 SW 역량을 휴머노이드로 확장하는 구조이다. 에스비비테크는 감속기 국산화 핵심 기업이며, RFHIC와 센서뷰는 로봇 통신·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평가된다. 그리고 LG 씨엔에스와 현대무백스는 AI 관제와 자동화 플랫폼 확산의 직접 수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목	투자포인트
1 삼성전자(005930)	삼성전자, 로봇 시대의 진짜 두뇌를 쥔 기업
2 삼성전기(009150)	로봇 시대의 눈과 관절을 잡은 진짜 부품 대장주
3 삼성SDI(006400)	배터리주가 아니라 로봇 심장주로 봐야 하는 이유
4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적자 로봇주인가, 삼성의 미래 병기인가?
5 SK하이닉스(000660)	AI로봇 시대의 진짜 대장 SK하이닉스!
6 LG전자(066570)	엔비디아가 찍은 로봇 동맹 LG전자
7 LG이노텍(011070)	기판 증설 순간 다 팔리는 회사 LG이노텍
8 LG씨엔에스(064400)	로봇을 굴리는 AI관제 대장주 LG씨엔에스

종목	투자포인트
9 현대모비스(012330)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완전 변신한다
10 현대오트모버(307950)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뒤의 진짜 수혜주는 이곳
11 현대무백스(319400)	로봇보다 먼저 팔리는 자동차 대장주 현대무백스
12 두산로보틱스(454910)	엔비디아가 찍은 두산로보틱스 반전주
13 RFHIC(218410)	로봇 시대 RF 전력, 반도체 진짜 괴물주다
14 에스비비테크(389500)	휴머노이드 관절주, 이제 감속기가 본 게임
15 센서뷰(321370)	로봇의 눈과 통신선을 동시에 잡은 센서뷰

[1. Global Physical AI Robots Market 정의 및 전망]

Physical AI는
현실 세계 자동화를
이끌 차세대 AI 산업
핵심 성장축

Physical AI 로봇은 생성형 AI 이후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AI 산업으로 평가된다. 기존 AI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Physical AI는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한 뒤 스스로 판단해 행동까지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AI가 화면 속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장비와 결합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업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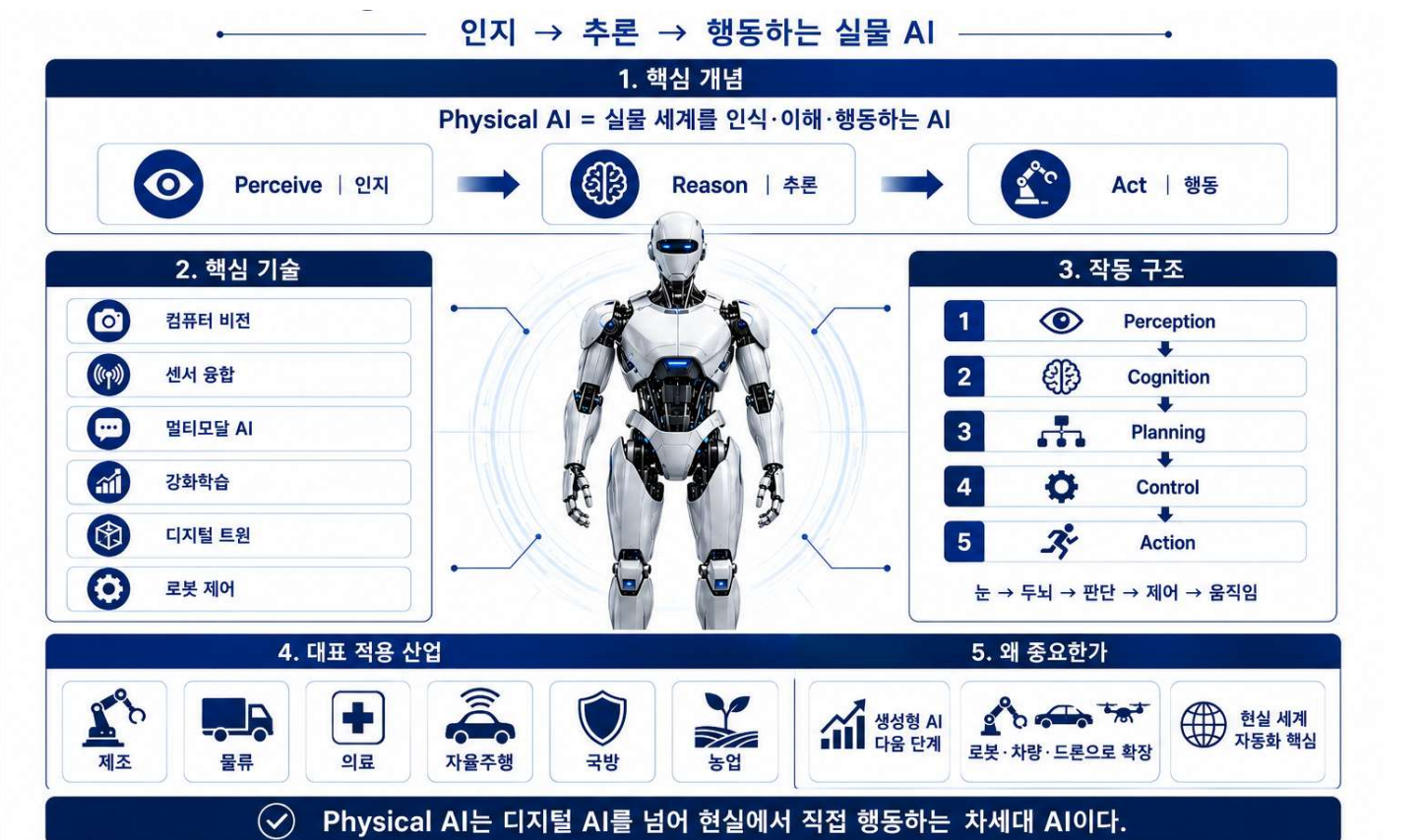
작동 구조는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하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Perceive)하고, AI 모델이 정보를 분석해 추론(Reason)한 뒤, 모터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해 행동(Act)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자동화 기계와 달리 정해진 경로만 반복하지 않고, 장애물이나 작업 조건 변화에도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핵심 기술은 컴퓨터 비전, 센서 융합, 멀티모달 AI, 강화학습, 디지털 트윈, 로봇 제어 기술이다. 컴퓨터 비전은 로봇의 눈 역할을 하고, 멀티모달 AI는 영상·음성·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한다.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한 행동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트윈은 가상 환경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실제 적용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인다.

적용 산업은 제조, 물류, 의료, 자율주행, 국방, 농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 자동화와 품질 검사, 물류에서는 자율 이동 로봇과 창고 최적화, 의료에서는 수술·재활 로봇이 대표 사례이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숙련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로봇 제조사만 볼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센서, 로봇 운영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 통합까지 포함한 생태계로 접근해야 한다.** 초보 투자자는 완제품보다 핵심 부품과 플랫폼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Physical AI는 현실 세계 자동화를 이끄는 차세대 AI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평가된다.

[그림 1] Physical AI Robots, 한눈에 이해하기



Global Physical AI Robots, 시장 규모 및 전망

Physical AI Robots
시장은 2025년
814억 달러 규모에서
2035년 1조
1,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 (CAGR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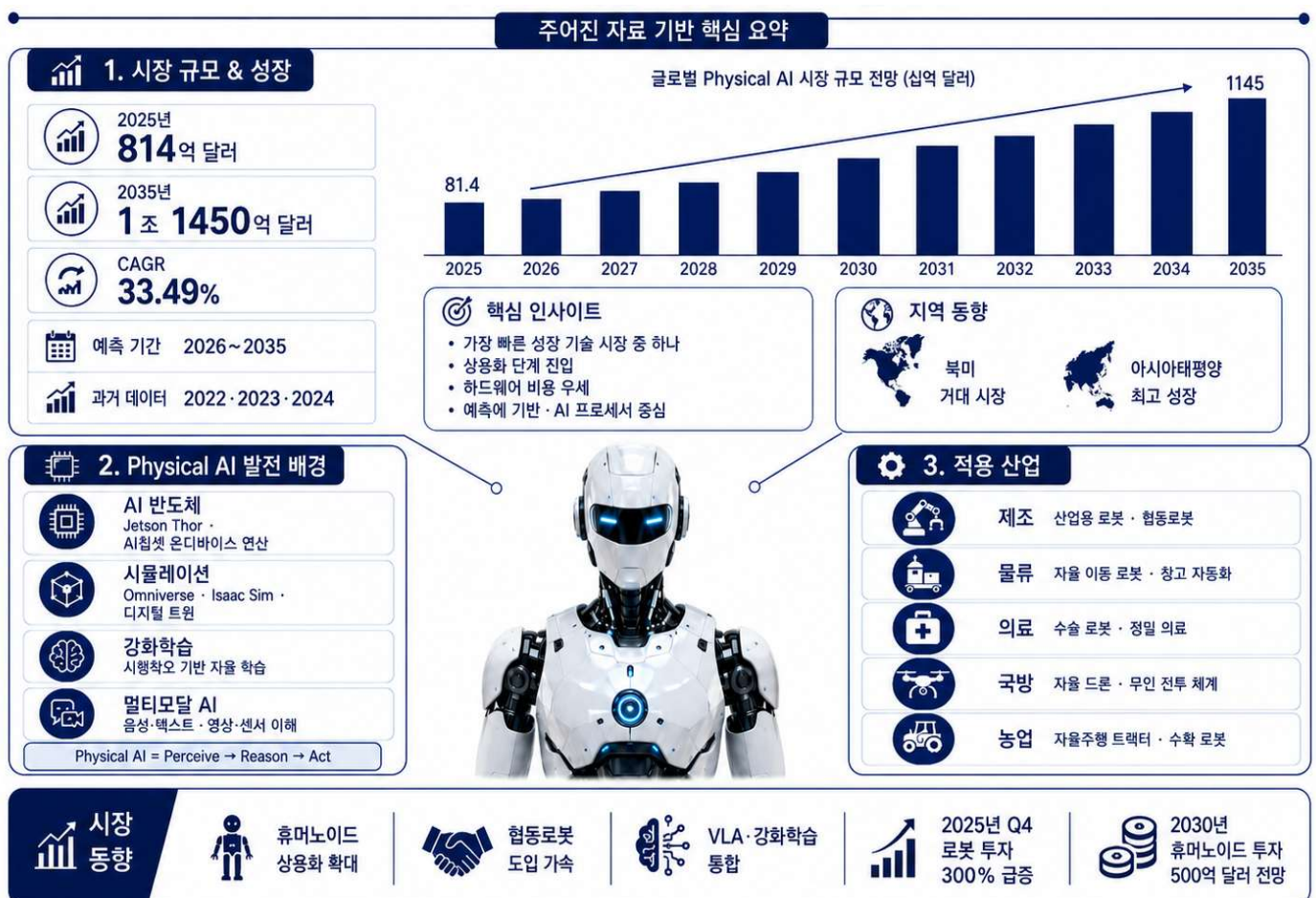
글로벌 Physical AI Robots 시장은 2025년 814억 달러 규모에서 2035년 1조 1,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33.5%로 추정된다. 이는 AI 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시장은 단순 연구·시연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실제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AI 반도체, 시뮬레이션, 강화학습, 멀티모달 AI 기술의 발전이다. NVIDIA Jetson Thor, Omniverse, Isaac Sim 과 같은 플랫폼은 로봇의 학습과 제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Vision-Language-Action(VLA) 모델은 음성·텍스트·영상·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응용 산업은 제조, 물류, 의료, 국방, 농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이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 이동 로봇과 창고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로봇과 정밀 의료 솔루션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에서는 자율 드론과 무인 전투 체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NVIDIA, Tesla, Boston Dynamics, Agility Robotics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 반도체, 로봇 플랫폼,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멀티모달 AI 가 향후 시장 성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판단된다.

[그림 2] Physical AI Robots,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Kaisoresearch,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지역별 동향 및 전망

Physical AI
로봇 시장은
북미의 플랫폼,
아시아의 생산·양산,
유럽의 산업 자동화가
결합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

Physical AI Robots 시장은 북미, 아시아태평양, 유럽의 3국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현재 시장 규모는 북미가 가장 크고, 성장 속도는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빠르며, 유럽은 산업 자동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강점을 바탕으로 Physical AI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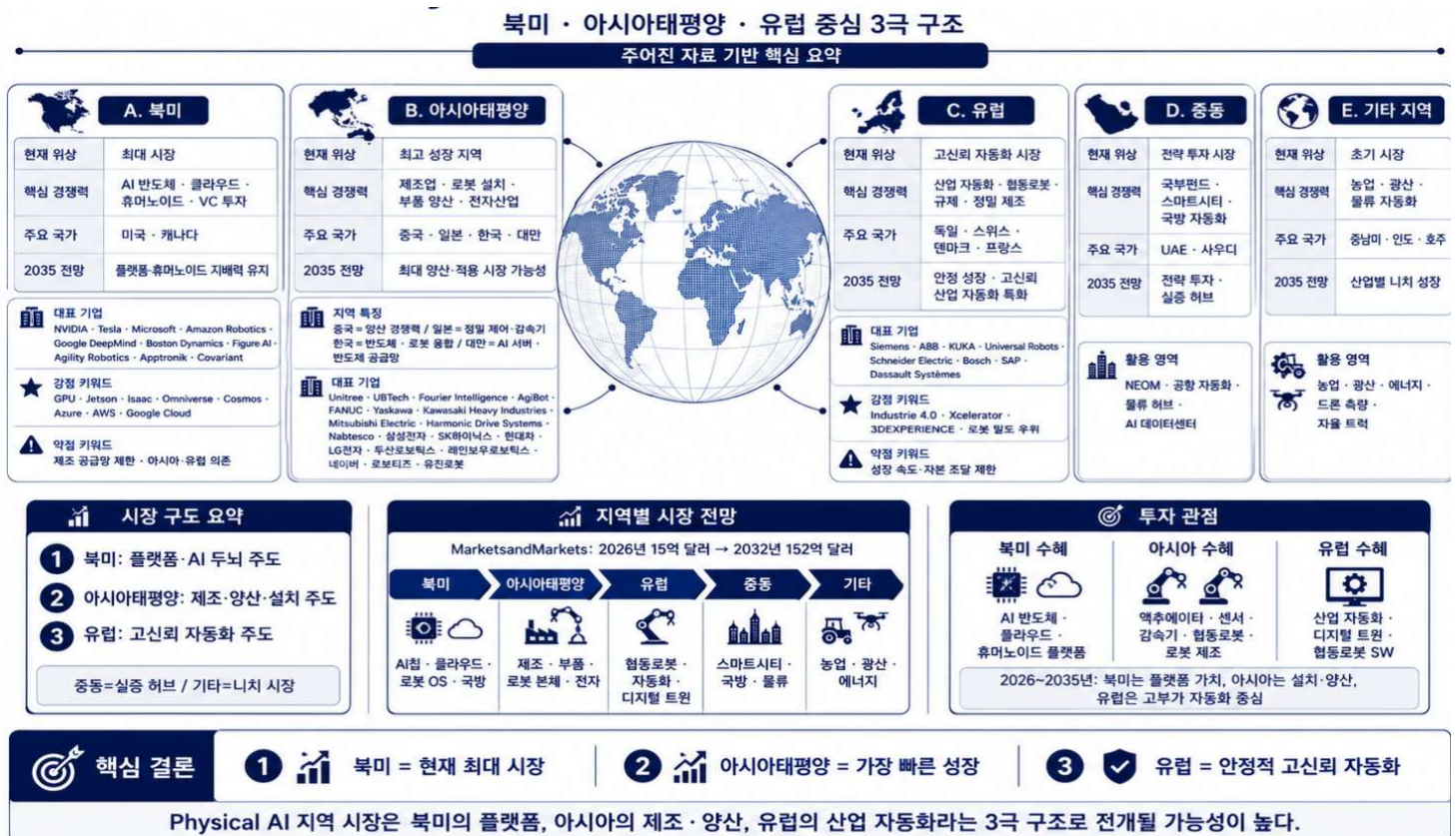
북미는 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NVIDIA, Tesla, Boston Dynamics, Agility Robotics, Figure AI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와 AI 플랫폼 개발에서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NVIDIA는 Cosmos, GR00T, Jetson 플랫폼을 중심으로 Physical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AI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생산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FANUC, 도요타 등 정밀 제어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로봇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지원과 대규모 투자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ABB, Siemens, KUKA를 중심으로 산업 자동화와 협동로봇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과 정밀 제조 분야에서 AI 기반 자동화 도입이 활발하며, EU AI 규제 체계는 인증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동은 UAE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물류, 국방 분야 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농업·광산·에너지 중심의 틈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Physical AI 시장은 북미의 플랫폼, 아시아의 생산·양산, 유럽의 산업 자동화가 결합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Physical AI Robots, 지역별 동향 및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최근 주요 업계 동향 및 전망

Physical AI
로봇 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연구·시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진입

Physical AI Robots 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연구·시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글로벌 빅테크와 자동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확대이다. NVIDIA는 CES 2025에서 Cosmos, GR00T, Jetson 기반 플랫폼을 공개하며 로봇 개발 생태계를 확장했고, 500개 이상의 개발사가 NVIDIA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Google DeepMind는 Apptronik과 협력해 Gemini Robotics를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있으며, Figure AI와 Agility Robotics 등도 차세대 휴머노이드 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본 유입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류 로봇 기업 Dexterity는 16억 5천만 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5년 4분기 로봇 산업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한 것으로 제시된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esla 역시 옵티머스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시장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휴머노이드 부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완성 로봇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액추에이터·배터리·AI 반도체 공급망도 대량 생산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한 AI가 실제 환경에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와 안전성 인증 체계 부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의료, 농업, 국방 분야는 아직 침투율이 낮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VLA 기반 로봇 제어 기술과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Physical AI Robots 산업은 기술 혁신과 대규모 자본 투자가 결합된 장기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Physical AI Robots, 최근 업계 동향 및 전망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유형별 시장 분석

Physical AI는
단순 자동화 아닌
인간과 협업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의 전환

Physical AI Robots 시장은 산업용 로봇 중심 구조에서 서비스·휴머노이드·자율 이동 로봇 중심 구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산업용 로봇이 가장 크다. 반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 협동로봇(Cobot), 모바일 로봇 및 드론이 높게 평가된다. 이는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를 넘어 인간과 협업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AI 기반 로봇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로봇은 제조, 조립, 도장, 검사,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성숙도가 가장 높다. 반면 서비스 로봇은 병원, 호텔, 식당, 청소 서비스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되며, 향후 제조업과 물류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동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높아 중소 제조업 자동화 수요 증가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 외골격 및 의수 로봇은 재활 치료, 근력 보조, 산업 현장 안전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로봇과 드론은 창고 자동화, 배송, 순찰,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현재 시장 규모를 주도하지만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단계이다. 반면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자율 이동 로봇은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향후 10년 동안 가장 큰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Physical AI 시대의 핵심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의 전환이며, 2026~2035년은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그림 5] Physical AI Robots, 유형별 시장 이해하기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구성 요소별 시장 분석

Physical AI
산업 경쟁력은 단순
로봇 제조가 아니라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
능력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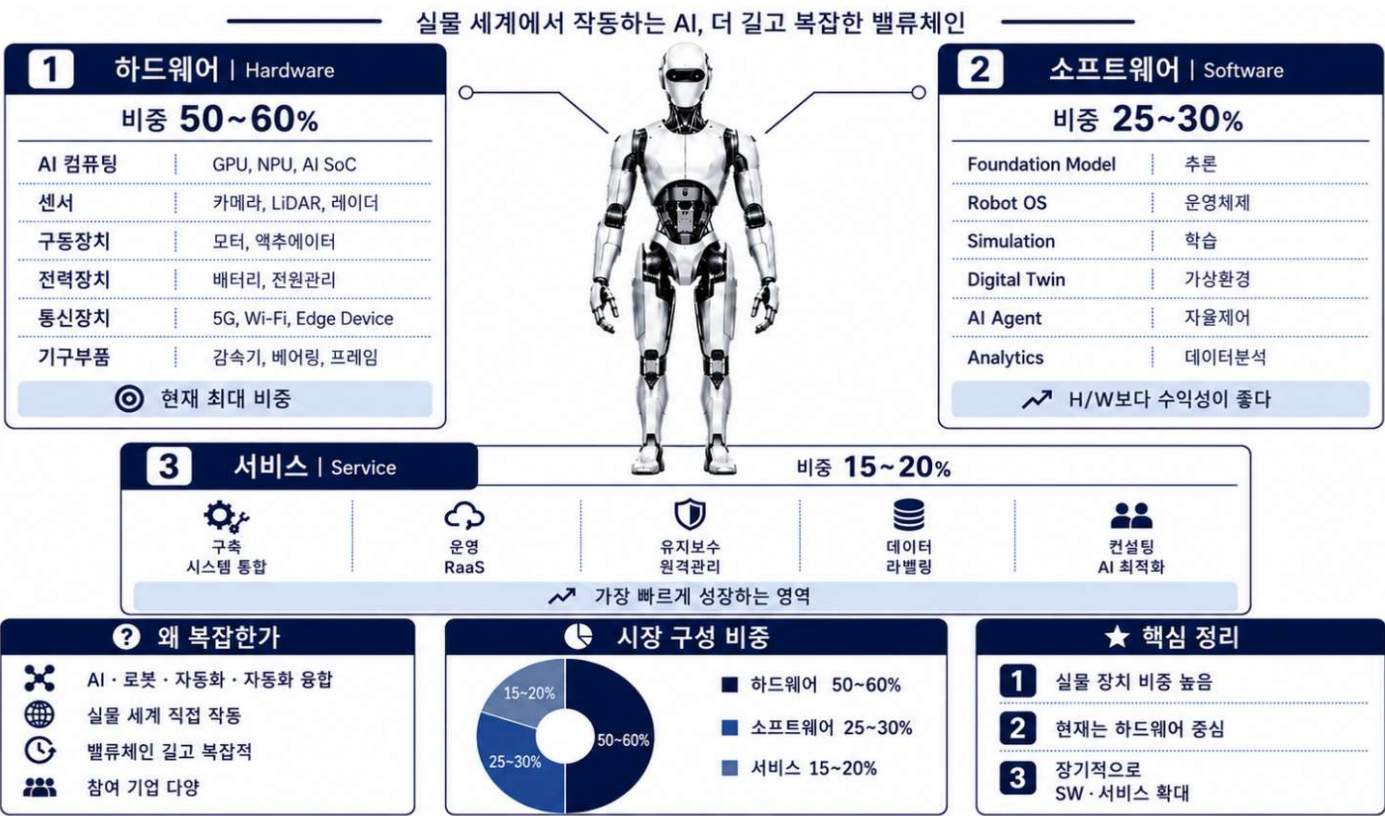
또한 Physical AI Robots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생성형 AI 시장이 대규모 언어모델과 GPU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Physical AI는 실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므로 센서, 액추에이터, 배터리, 로봇 운영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 통합까지 포함하는 더욱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다. 현재 시장 비중은 하드웨어가 약 50~60%로 가장 크며, 소프트웨어는 25~30%, 서비스는 15~20%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드웨어는 Physical AI의 기반 인프라이다. AI 컴퓨팅, 센서, 모터, 액추에이터, 배터리, 통신장치, 감속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NVIDIA의 Jetson 플랫폼과 같은 AI 반도체는 로봇의 실시간 판단과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카메라, LiDAR, 레이더, 관성센서 등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수십 개 이상의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관련 부품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소프트웨어는 Physical AI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Foundation Model, Robot OS, AI Agent,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특히 Google DeepMind, OpenAI, NVIDIA 등이 개발하는 AI 모델은 로봇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켜 개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서비스 영역은 현재 비중이 작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다.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데이터 라벨링, AI 최적화, RaaS(Robot-as-a-Service)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초기 투자 부담 없이 로봇을 구독형으로 도입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하드웨어가 시장을 주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Physical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 로봇 제조가 아니라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 능력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림 6] Physical AI Robots, 구성 요소별 시장 이해하기



자료: MarketsandMarkets,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기술별 시장 분석

Physical AI 로봇
승자는 기술 융합으로
현실 내 안정적 자율
지능을 구현하는 기업

Physical AI Robots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로봇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시장은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제스처·동작 인식, 강화학습 및 제어 시스템, 멀티모달 AI, 생체모방 로봇공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단일 기술이 아닌 융합 산업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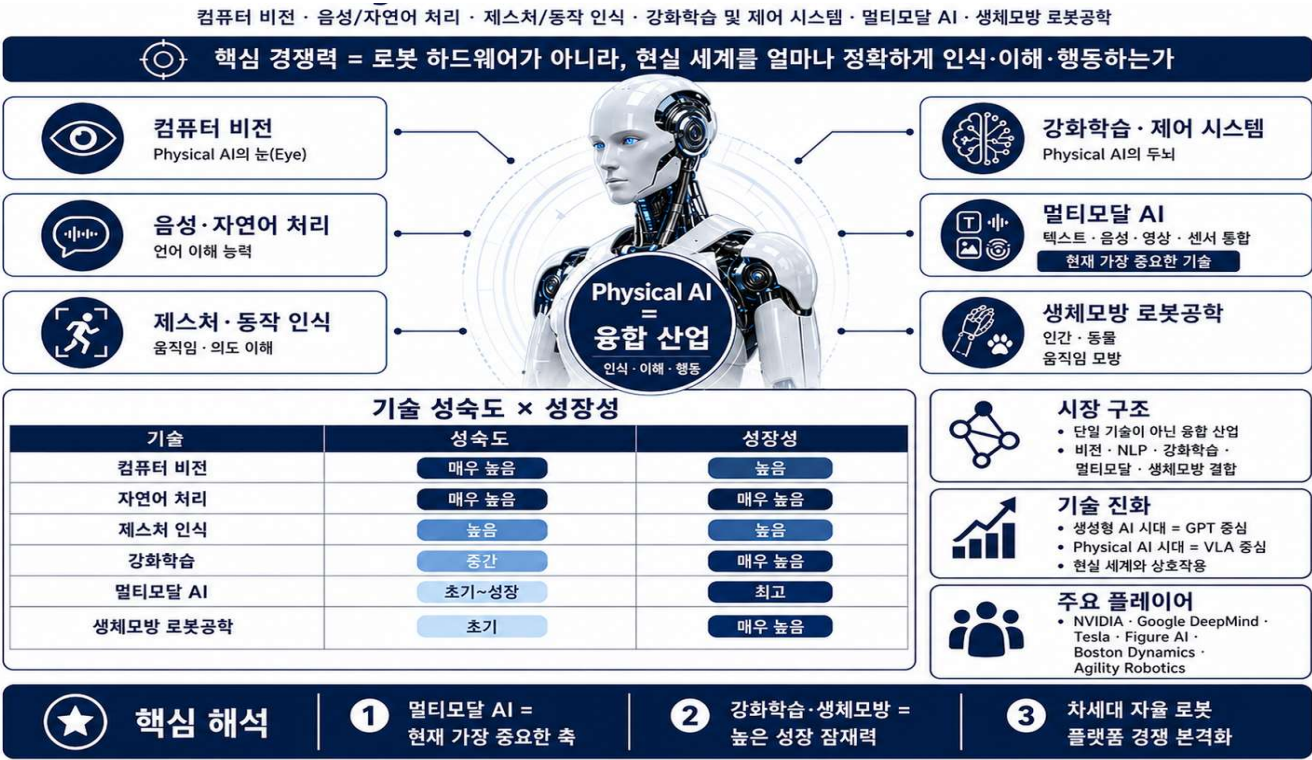
컴퓨터 비전은 Physical AI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로 객체 인식, 거리 측정, 공간 이해 등을 담당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의 음성과 언어를 이해하여 행동 명령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스처 및 동작 인식 기술은 사람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여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강화학습은 Physical AI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로봇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최적의 행동 방식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드론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생체모방 로봇공학은 인간과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이동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멀티모달 AI로 평가된다.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음성, 영상,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Vision-Language-Action(VLA) 모델은 환경 인식, 언어 이해, 행동 생성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며 Physical AI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가 가장 앞서 있으며, 강화학습과 생체모방 로봇공학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Physical AI Robots 시장의 승자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현실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자율 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그림 7] Physical AI Robots, 기술별 시장 이해하기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배포 방식별 시장 분석

Physical AI 로봇
시장은 향후
하이브리드 AI 가
표준이 될 가능성

Physical AI Robots 시장의 배포 방식은 크게 클라우드 기반 AI, 온디바이스 AI, 하이브리드 AI 로 구분된다. 핵심은 AI 연산을 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할 것인지, 로봇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또는 두 방식을 결합할 것인지에 있다. 일반 생성형 AI 와 달리 Physical AI 는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장비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연시간, 안정성, 보안, 통신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AI 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 모델 학습, 시뮬레이션, 운영 관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대규모 연산과 중앙 관리에 유리하지만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고 지연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온디바이스 AI 는 로봇 내부에서 직접 추론과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판단, 저지연성, 보안성이 강점이며 휴머노이드, 드론, 자율주행 분야에서 필수적인 구조로 평가된다. 다만 전력 소모와 발열, 연산 성능의 제약이 존재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AI 가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로봇 내부에서는 실시간 판단과 안전 제어를 수행하고, 현장 엣지는 데이터 최적화를 담당하며, 클라우드는 학습과 운영 관제를 수행하는 3 계층 구조가 대표적이다. 제조 자동화와 물류 로봇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합하며, 의료 로봇과 국방 드론은 온디바이스 비중이 높다.

투자 관점에서는 하이브리드 AI 가 향후 표준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클라우드는 학습과 플릿 관리, 온디바이스는 실시간 행동과 안전 제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Physical AI 시장은 클라우드와 엣지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두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플랫폼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AI 반도체, 엣지 서버, 로봇 운영체제, 디지털 트윈 기업들이 핵심 수혜 영역으로 평가된다.

[그림 8] Physical AI Robots, 배포 방식별 시장 이해하기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II. Global Humanoid AI Robots Market 정의 및 전망]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Physical
AI의 대표 형태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신체 구조를 갖추고 인공지능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판단·행동하는 범용 로봇이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용접, 조립, 도장처럼 정해진 공정에 특화된 장비였다면, 휴머노이드는 공장, 물류센터, 서비스 현장 등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플랫폼이다.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는 머리, 몸통, 팔, 다리 구조를 갖는다. 카메라, 마이크, LiDAR, 관성센서, 힘·토크 센서 등을 활용해 외부 환경을 인식한 뒤, AI 모델이 정보를 분석하고 액추에이터와 모터를 제어해 실제 행동을 수행한다. 즉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Physical AI의 대표 형태**이다.

산업용 로봇과의 차이도 명확하다. 산업용 로봇은 특정 위치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데 강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사람과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휴머노이드는 인간형 구조와 AI를 결합해 기존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이는 제조업과 물류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최근 휴머노이드 시장이 주목받는 배경은 노동력 부족, 고령화, 임금 상승,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의 발전이다. 특히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시각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는 휴머노이드를 단순 로봇 테마로 보기보다 **AI 반도체, 센서, 액추에이터, 배터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결합된 융합 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완제품 기업뿐 아니라 핵심 부품과 플랫폼 기업의 수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시장 초기에는 기술 검증과 원가 하락 속도가 핵심 변수이다. 결국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인간 노동을 보완하고 일부 대체할 차세대 자동화 플랫폼으로 해석된다.

[그림 9] Humanoid AI Robots, 한눈에 이해하기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Humanoid AI Robots, 성장 동력 및 상용화 수준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향후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AI 산업
중 하나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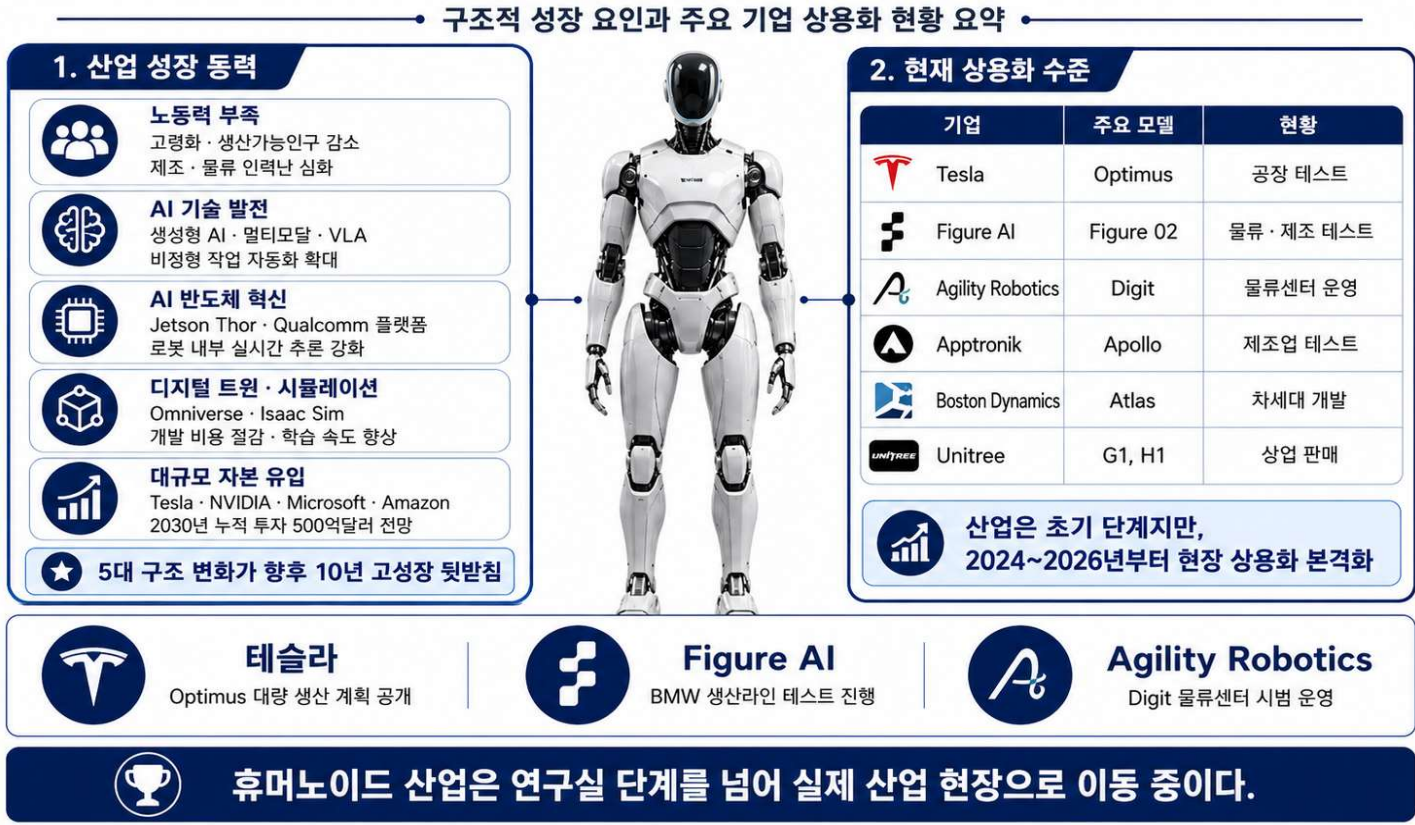
휴머노이드 AI 로봇 산업은 기술 실증 단계를 지나 초기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 노동력 부족 문제이다.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제조·물류·건설 분야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휴머노이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화 대안으로 평가된다.

기술 발전 역시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의 발전으로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NVIDIA Jetson Thor와 같은 차세대 AI 반도체는 로봇 내부에서 실시간 추론을 가능하게 하며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발전도 개발 비용 절감과 학습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주요 기업의 테스트와 파일럿 적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Tesla의 Optimus는 공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Figure AI의 Figure 02는 물류 및 제조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다. Agility Robotics의 Digit은 실제 물류센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Apptronik의 Apollo 역시 제조업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Unitree는 G1과 H1 모델을 상업 판매하고 있으며, Boston Dynamics는 차세대 Atlas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휴머노이드 산업은 노동력 부족, AI 기술 혁신, 반도체 발전,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대규모 자본 투자라는 다섯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성장하는 산업으로 해석된다. 이는 연구개발 중심 산업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AI 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림 10] Humanoid AI Robots, 성장 동력 및 상용화 수준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로 재구성

Global Humanoid AI Robots, 시장 규모 및 전망

휴머노이드 AI Robots 시장은 2025년 49억 달러 2034년 1,651억 달러 규모로 성장 (CAGR 50.6%)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AI 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48.9억 달러에서 2026년 62.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2034년에는 1,651.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50.6%에 해당하는 수치로,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산업 중 하나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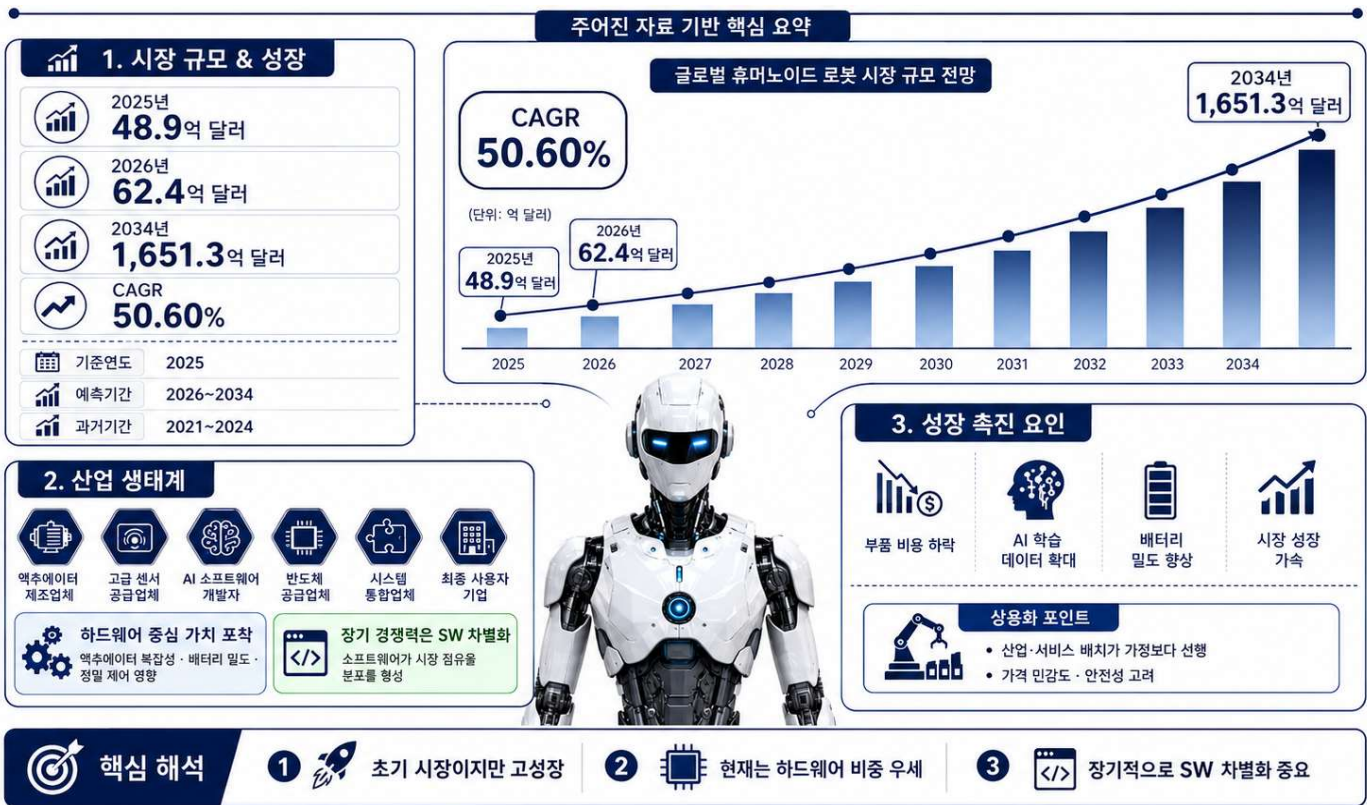
현재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동력은 명확하다. 첫째,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 발전으로 로봇의 인식·판단·행동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셋째, AI 반도체 성능 개선과 배터리 기술 발전이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부품 가격 하락과 학습 데이터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 생태계는 액추에이터 제조업체, 센서 공급업체, AI 소프트웨어 개발사, 반도체 기업, 시스템 통합업체, 최종 사용자 기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액추에이터, 배터리, 정밀 제어장치 등 하드웨어가 가치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와 운영 플랫폼 경쟁력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초기 상용화는 산업용과 서비스용 시장이 먼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공장 자동화, 물류센터, 창고 운영, 산업 현장은 경제성과 투자수익률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용 휴머노이드는 가격 부담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해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하드웨어 중심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휴머노이드 산업은 초기 고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그림 11] Humanoid AI Robots,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Fortunebusinessinsights,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Humanoid AI Robots, 지역 & 국가별 동향 및 전망

휴머노이드 AI Robots 시장은 북미의 AI 플랫폼, 아시아의 제조 역량, 유럽의 산업 자동화가 결합된 3 극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아프리카, 남미의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2025 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태평양 42.6%, 북미 29.3%, 유럽 17.1%, 중동·아프리카 6.1%, 남미 5.0%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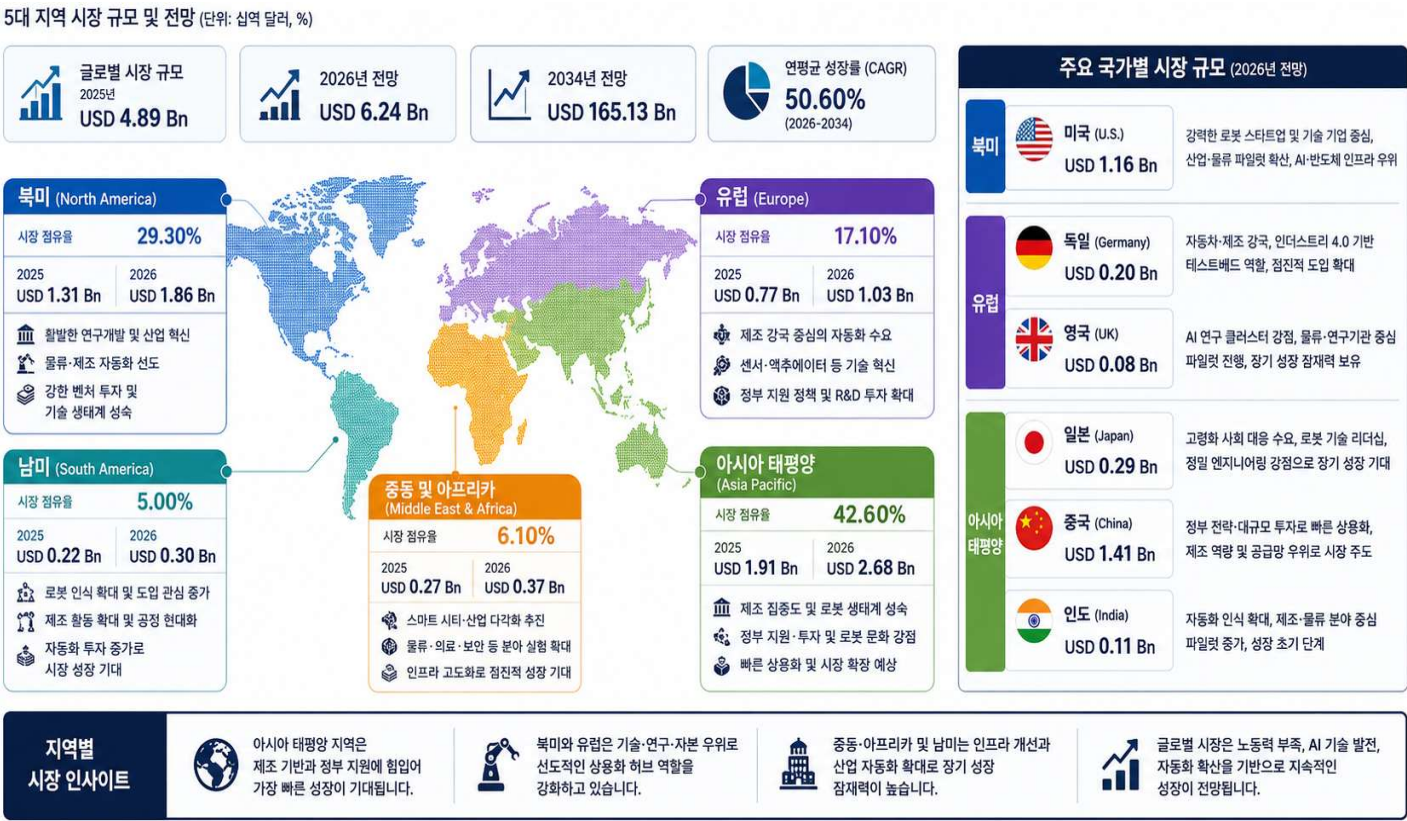
북미는 기술과 플랫폼 경쟁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26 년 시장 규모가 11 억 6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NVIDIA, Tesla, OpenAI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로봇 플랫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강력한 벤처투자와 연구개발 역량도 북미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다.

아시아태평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2025 년 19 억 1 천만 달러에서 2026 년 26 억 8 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6 년 14 억 1 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정부 지원과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정밀 로봇공학과 액추에이터 기술, 한국은 반도체와 로봇 부품 경쟁력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다.

유럽은 산업 자동화 중심 시장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와 Industry 4.0 인프라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테스트가 확대되고 있다. ABB, Siemens, KUKA 등 산업 자동화 기업들이 시장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 년 유럽 시장은 10 억 3 천만 달러 규모가 예상된다.

중동·아프리카와 남미는 아직 초기 단계 시장이지만 스마트시티 구축, 산업 자동화, 제조 현대화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은 북미의 AI 플랫폼, 아시아의 제조 역량, 유럽의 산업 자동화가 결합된 3 극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관점에서는 아시아의 생산 확대와 북미의 플랫폼 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한 성장 축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Humanoid AI Robots, 지역 & 국가별 동향 및 전망



자료: Fortunebusinessinsights,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Humanoid AI Robots, 응용 분야별 시장 이해하기

휴머노이드 AI Robots 시장은 산업용의 실적 견인, 서비스용 점유율 확대, 가정용의 미래 옵션 구조로 전개될 전망이다

통상 휴머노이드 AI 로봇 시장은 크게 산업용, 서비스용,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산업용이 성장률을 주도하고 서비스용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가정용은 장기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상용화 단계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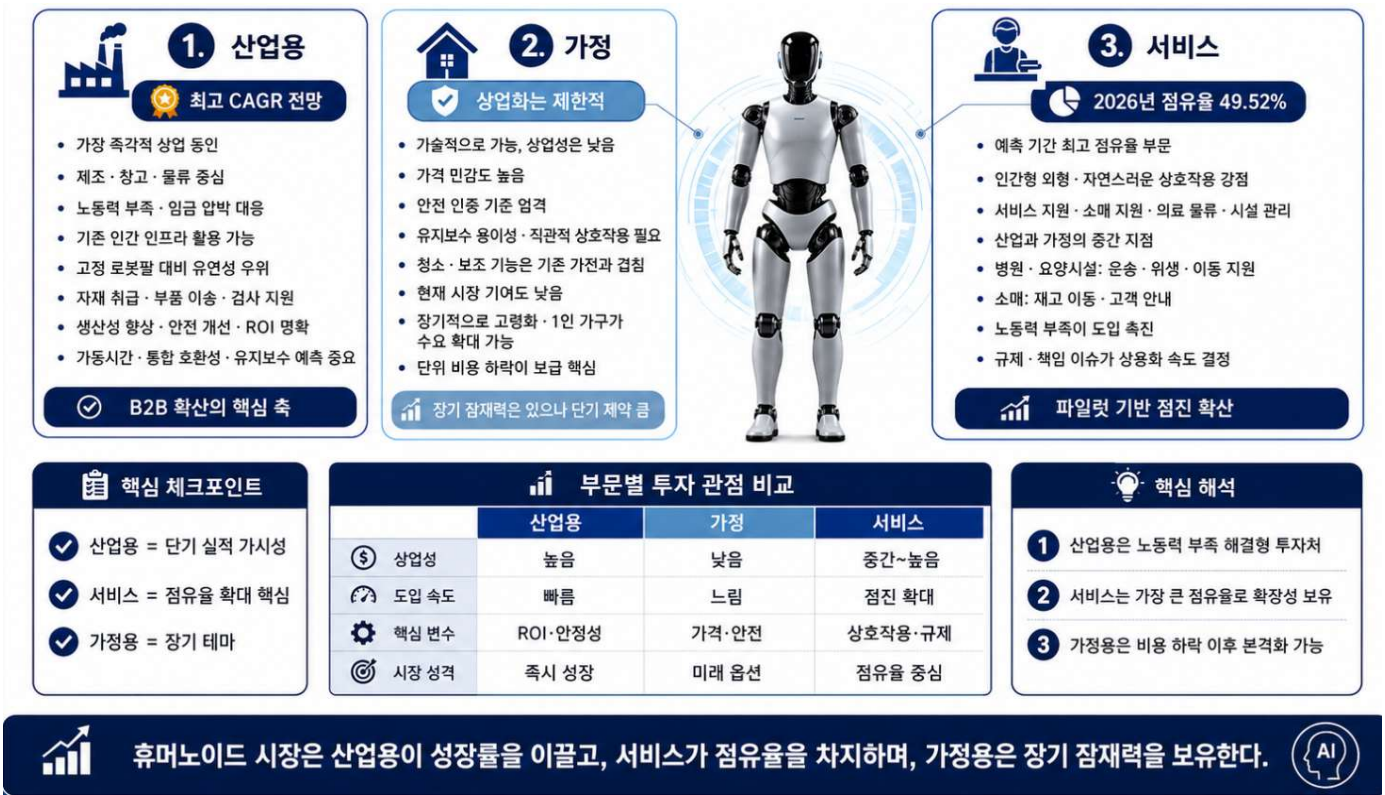
산업용 부문은 향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과 물류업은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생산성 향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휴머노이드는 기존 인간 중심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재 운반, 부품 이송, 검사 지원, 반복 작업 수행 등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중시하며 단계적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용 부문은 2026 년 기준 약 49.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시장이다. 병원, 요양시설, 호텔, 물류센터, 소매점 등에서 물품 운반, 고객 안내, 시설 관리, 위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능력이 강점이며, 서비스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용 부문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가격 부담, 안전 인증, 유지보수 문제 등이 보급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청소나 운반 보조 기능은 기존 가전제품과 일부 역할이 겹친다. 다만 고령화와 1 인 가구 증가로 돌봄과 생활 지원 수요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잠재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은 산업용이 초기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서비스용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가정용은 중장기 성장 옵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산업·서비스 분야의 상용화 속도가 시장 확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그림 13] Humanoid AI Robots, 응용 분야별 시장 이해하기



[III. Global Physical & Humanoid AI Robots 밸류체인 및 주요 종목]

Physical AI 로봇
완제품보다 플랫폼,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

Global Physical AI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은 AI 반도체 → 센서·핵심부품 → AI 모델·로봇 운영체제 → 디지털 트윈 → 로봇 제조 → 시스템 통합(SI) → 최종 수요산업 순으로 구성된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최종 로봇 완제품보다 플랫폼,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장 상단에는 AI 반도체가 위치한다. NVIDIA, AMD, Intel 등이 대표 기업이며 로봇의 학습과 추론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Jetson 계열과 같은 온디바이스 AI 칩은 휴머노이드 확산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음 단계인 센서·핵심부품은 카메라, LiDAR, Radar, IMU, 토크센서 등을 포함하며 Sony, Cognex, Luminar 등이 대표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파이버프로, 센서뷰, 현대모비스, 삼성전기가 관련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AI 모델과 로봇 운영체제는 Physical AI의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Google DeepMind, OpenAI, NVIDIA 등이 Foundation Model 경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ROS, NVIDIA Isaac 등이 대표 플랫폼이다.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영역은 NVIDIA Omniverse, Siemens Xcelerator 등이 주도하며 실제 학습 비용을 줄이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로봇 제조 단계에는 Tesla, Figure AI, Agility Robotics, ABB, FANUC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조 자체보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Accenture, IBM, Deloitte와 같은 시스템 통합 기업이 고객 맞춤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며 반복 매출을 창출한다.

최종 수요는 제조, 물류,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한다. Amazon, BMW, Tesla, DHL 등이 대표 고객군이다.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로봇 완제품보다 AI 칩, 소프트웨어 플랫폼, 핵심 부품 기업이 더 높은 가치 창출 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Global Physical AI Robots 밸류체인 및 주요 종목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그림 15] 한장으로 읽는 Global Physical AI Robots 밸류체인

1. 하드웨어(Hardware)		
세부 영역	글로벌 대표 기업(티커)	대표 제품·플랫폼
 A. AI 반도체 컴퓨팅	- NVIDIA (NVDA) - AMD (AMD) - Intel (INTC) - QUALCOMM (QCOM)	- H100, B100, Jetson Thor, Isaac - MI300 - Gaudi - RB5 Robotics
 B. AI 반도체 IP	Arm Holdings (ARM)	Edge AI CPU
 C. 센서 인지	- SONY (SONY) - Cognex (CGNX)	- 이미지센서 - 머신비전
 D. 모터 구동장치	- Fanuc (6954.T) - Harmonic Drive Systems (6324.T) - Nabtesco (6268.T)	- 서보모터 - 정밀 감속기 - 산업용 감속기
 E. 감속기 베어링	- NSK (6471.T) - THK (6481.T)	- 베어링 - LM Guide
 F. 전력 배터리	- CATL (300750.SZ) - Panasonic (6752.T) - BYD (1211.HK)	- EV 배터리 - 원통형 배터리 - Blade Battery
 G. 통신장치	Ericsson (ERIC)	5G 네트워크
 H. 드론·무인체계	AeroVironment (AVAV)	군사용 드론

2. 소프트웨어(Software)		
세부 영역	글로벌 대표 기업(티커)	대표 제품·플랫폼
 A. AI 모델 제어 SW	- Microsoft (MSFT) - Alphabet (GOOGL) - Tesla (TSLA) - Palantir Technologies (PLTR)	- Copilot AI - Gemini - Optimus AI, FSD - Foundry, AIP
 B. 산업 SW 디지털 트윈	- Siemens (SIEGY) - PTC (PTC)	- Xcelerator, Industrial OS - ThingWorx
 C. 로봇 자동화 제어	- ABB (ABBN.SW) - Yaskawa Electric (6506.T)	- Robotics, Automation - Motoman, Automation

3. 서비스(Service)		
세부 영역	글로벌 대표 기업(티커)	대표 제품·플랫폼
 A. 물류 자동화 RaaS	- Amazon (AMZN) - Zebra Technologies (ZBRA)	- Amazon Robotics - 물류 플랫폼
 B. 의료 수술 로봇	- Intuitive Surgical (ISRG) - Medtronic (MDT) - Johnson & Johnson (JNJ)	- Da Vinci - Hugo - Ottava
 C. 농업·건설 자동화	- Deere (DE) - Trimble (TRMB) - CNH Industrial (CNH)	- 자율주행 트랙터 - 정밀 농업 - 스마트 농업
 D. 국방·보안	General Dynamics (GD)	UGV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그림 16] 한장으로 읽는 한국 Physical AI Robots 밸류체인 (구성 요소별)

1. 하드웨어(Hardware)		
세부 영역	한국 대표 기업(티커)	핵심 특징
 AI 컴퓨팅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AI 메모리·파운드리, HBM
 자율주행·로보틱스 플랫폼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HL만도(204320)	SDV·자율주행차, 전장·자율주행 센서, 조향·제동·ADAS
 센서·인지·통신	삼성전기(009150), LG이노텍(011070), RFHIC(218410), 센서뷰(321370)	카메라모듈·MLCC, 카메라모듈, RF 부품·GaN 전력증폭기, RF 센서·초고주파 케이블
 전력장치·배터리·로봇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이노베이션(096770), LG전자(066570)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자본 노출, 서비스로봇·가전 AI
 로봇 플랫폼·완성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두산로보틱스(454910), 로보티즈(108490), 유일로보틱스(388720)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구동·감속기·기구부품	에스피지(058610), 에스비비테크(389500)	감속기, 감속기
 의료·산업용	고영(098460)	의료·산업용 로봇
 농업·드론	제노코(361390)	농업·드론
2. 소프트웨어(Software)		
세부 영역	한국 대표 기업(티커)	핵심 특징
 멀티모달	NAVER(035420)	멀티모달
 Robot OS	현대오토에버(307950)	Robot OS
 Simulation	삼성SDS(018260)	Simulation
3. 서비스(Service)		
세부 영역	한국 대표 기업(티커)	핵심 특징
 구축 컨설팅	LG씨엔에스(064400)	구축 컨설팅
 물류자동화	현대무백스(319400)	물류자동화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Global Physical AI Robots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

투자 관심은
단기 AI
반도체·핵심부품,
중장기
AI SW·디지털 트윈

Global Physical AI Robots 밸류체인별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프리미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NVIDIA 는 선행 PER 19.6 배에도 ROE 76.5%로 수익성이 높고, Arm 은 PSR 58.1 배로 플랫폼 기대가 선 반영되어 있다. 센서·감속기·배터리는 대체로 PER 15~30 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AI 모델·제어 SW 중심으로 고평가가 형성되어 있다. Microsoft, Alphabet, Palantir 는 높은 PSR 과 ROE 를 보이며, 특히 Palantir 는 AI 데이터 플랫폼 기대가 크다. 서비스 부문은 Amazon, Intuitive Surgical, Deere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밸류에이션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AI 반도체·핵심부품, 중장기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디지털 트윈 영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표 1] Global Physical AI Robots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

부 문	구 분	종 목	시가총액 (십억 \$)	12개월 선행 (Fwd 12m)				비 고
				PER	PBR	PSR	ROE	
하드웨어 (Hardware)	AI 반도체 컴퓨팅	NVIDIA	4,965.6	19.6	12.3	10.5	76.5	
		AMD	834.2	49.8	10.8	13.3	20.7	
		Intel	626.1	95.1	5.3	10.1	5.4	
		QUALCOMM	223.2	19.9	9.1	5.3	43.4	
	AI 반도체 IP	Arm Holdings	406.7	158.7	36.3	58.1	20.8	
	센서 인지	SONY	122.7	15.5	2.0	1.5	13.8	일본
		Cognex	10.6	39.3	7.2	9.2	17.0	
	모터 구동장치	Fanuc	42.7	32.6	3.4	7.1	10.6	일본
		Harmonic Drive Systems	3.9	99.4	7.5	8.4	7.3	일본
		Nabtesco	3.5	24.6	2.0	1.6	8.0	일본
	감속기 베어링	NSK	3.4	17.1	0.8	0.5	4.6	일본
		THK	5.3	27.9	3.0	2.8	10.6	일본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력 배터리	CALT	256.7	17.3	4.1	2.6	24.6	중국
		Panasonic	58.3	18.6	1.6	1.2	8.9	일본
		BYD	40.7	14.9	2.4	0.3	20.6	홍콩
	통신장치	Ericsson	37.6	19.1	3.2	1.5	18.4	
	드론·무인체계	AeroVironment	8.6	39.3	1.9	3.6	4.1	
	AI 모델 제어 SW	Microsoft	2,902.6	20.1	5.0	8.1	27.5	
		Alphabet	2,406.0	25.1	6.6	4.5	29.8	
		Tesla	1,526.4	182.4	15.2	14.0	7.0	
		Palantir Tech.	306.8	72.3	21.3	32.6	34.7	
	산업 SW 디지털 트윈	Siemens N	239.6	22.1	3.0	2.4	14.3	독일
		PTC	13.1	13.5	3.3	4.7	23.2	
	로봇 자동화 제어	ABB	187.3	29.9	9.2	4.8	31.5	스위스
		Yaskawa Electric	10.6	30.9	3.2	2.7	10.2	일본
서비스 (Service)	물류 자동화 RaaS	Amazon	2,566.1	25.4	4.4	2.9	19.3	
		Zebra Tech.	10.9	11.8	2.8	1.7	22.6	
	의료 수술 로봇	Intuitive Surgical	145.6	37.0	6.3	11.7	16.7	
		Medtronic	103.0	13.3	2.0	2.6	14.6	
		Johnson & Johnson	579.8	19.8	6.0	5.6	32.5	
	농업·건설 자동화	Deere	155.9	27.2	5.5	3.6	22.9	
		Trimble	11.8	13.2	1.9	2.9	14.1	
		CNH Industrial	13.1	19.2	1.5	0.8	10.8	
	국방·보안	General Dynamics	97.4	20.7	3.5	1.7	17.2	

자료: FnGuide(Quantwise), 핀릿 리서치센터, 6/12 종가 기준

Global Physical AI 관련 주요 종목의 최근 수익률 비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AI 반도체가 가장 강한 상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AMD, Intel, Arm 은 연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하며 시장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Cognex-Harmonic Drive-THK 등 센서와 정밀부품 기업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부문은 Microsoft와 Alphabet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이 나타난다. Palantir, PTC 등은 최근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부문 역시 Amazon을 제외하면 의료·농업·물류 관련 종목들의 성과가 제한적이다.

현재 시장 자금이 AI 반도체, 로봇 부품, 자동화 장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에 AI 컴퓨팅과 정밀 구동장치 그리고 로봇 플랫폼과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표 2] Global Physical AI Robots 기업 수익률 비교

부 문	구 분	종 목	1주전	1개월전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	연초대비
하드웨어 (Hardware)	AI 반도체 컴퓨팅	NVIDIA	0.0	-7.1	12.0	17.2	41.5	10.0
		AMD	9.7	14.1	158.7	142.7	331.7	138.9
		Intel	25.6	3.3	175.3	229.5	499.8	237.6
		QUALCOMM	-2.0	0.7	61.4	18.8	33.4	23.8
	AI 반도체 IP	Arm Holdings	11.1	83.2	230.8	190.9	174.7	248.4
	센서·인지	SONY	-7.5	-5.5	-4.8	-21.3	-8.5	-18.2
		Cognex	4.6	-3.2	30.4	78.4	107.9	76.8
	모터 구동장치	Fanuc	-9.1	-10.3	11.7	10.1	82.4	14.2
		Harmonic Drive	-7.6	-0.8	54.3	65.8	120.0	73.3
		Nabtesco	-7.8	-17.1	7.2	19.2	104.9	27.2
	감속기 베어링	NSK	-7.3	-20.1	-7.1	14.8	71.0	12.9
		THK	-7.0	-5.5	40.5	69.0	79.7	76.6
	전력 배터리	CALT	-2.0	-8.4	-0.2	0.8	58.1	7.5
		Panasonic	1.2	11.6	45.5	74.7	150.1	87.8
		BYD	-3.5	-13.3	-11.9	-12.1	-35.6	-9.2
	통신장치	Ericsson	-2.2	-0.4	7.5	28.3	44.5	27.3
	드론·무인체계	AeroVironment	-8.3	1.0	-19.5	-28.6	-10.3	-29.5
소프트웨어 (Software)	AI 모델 제어 SW	Microsoft	-6.2	-4.2	-2.8	-18.4	-18.4	-19.2
		Alphabet (GOOGL)	-2.4	-7.1	18.5	16.3	104.7	14.9
		Tesla	4.0	-6.2	2.9	-11.5	27.4	-9.6
		Palantir Tech.	-5.6	-5.9	-16.6	-30.3	-5.3	-28.0
	산업 SW 디지털 트윈	Siemens N	-1.6	-0.0	17.7	11.6	21.7	10.6
		PTC	-17.0	-21.2	-27.8	-35.4	-33.5	-34.8
	로봇 자동화 제어	ABB	-1.8	0.6	20.5	40.1	71.2	37.8
		Yaskawa Electric	-7.7	-9.1	35.5	25.2	93.4	33.2
서비스 (Service)	물류 자동화 RaaS	Amazon	-3.0	-10.3	13.9	5.5	11.9	3.4
		Zebra Tech.	-1.6	-5.5	11.9	-14.9	-22.0	-5.9
	의료·수술 로봇	Intuitive Surgical	-2.6	-4.8	-14.2	-24.2	-19.9	-27.4
		Medtronic	-1.8	4.4	-8.2	-19.7	-9.4	-16.5
		Johnson & Johnson	3.5	7.4	-0.5	13.8	53.8	16.4
	농업·건설 자동화	Deere	-1.0	-2.0	-1.4	19.1	11.7	24.0
		Trimble	-7.0	-10.8	-23.8	-37.2	-30.3	-35.7
		CNH Industrial	-1.4	-1.3	-1.4	7.1	-17.1	15.0
	국방·보안 로봇	General Dynamics	4.0	4.0	1.4	6.7	28.7	7.0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6/12 종가 기준

한국 Physical AI Robots 기업 수익률 비교

한국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AI 컴퓨팅, 센서 부품,
중장기적으로는
Robot OS·로봇
플랫폼 기업에 관심

국내 Physical AI Robots 관련 종목의 최근 수익률을 보면 **AI 컴퓨팅과 센서·인지·통신 부문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RFHIC 등은 6월 12일 종가 기준 연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로봇 플랫폼·완성로봇 기업들은 최근 단기 조정이 나타나며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은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한국 Physical AI Robots 업종은 자금이 AI 반도체, 센서, 정밀부품 등 핵심 인프라 영역에 우선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단기적으로는 AI 컴퓨팅과 센서 부품,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운영체제(Robot OS) 및 로봇 플랫폼 기업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

[표 3] 한국 Physical AI Robots 기업 수익률 비교

부 문	구 분	종 목	1주전	1개월전	3개월전	6개월전	1년전	연초대비
하드웨어 (Hardware)	AI 컴퓨팅	삼성전자	-2.0	15.6	71.6	196.1	442.0	169.0
		SK하이닉스	3.9	17.2	131.2	276.5	813.0	230.3
	자율주행 로보틱스 플랫폼	현대차	-13.3	-6.0	16.5	101.3	201.2	104.7
		현대모비스	-12.9	10.8	46.4	60.8	113.4	62.7
		HL만도	17.8	8.0	18.4	23.3	86.8	10.7
	센서 인지 통신	삼성전기	-2.5	78.9	329.0	530.2	1,204.4	572.2
		LG이노텍	-10.7	48.9	307.9	251.8	591	282.3
		RFHIC	-7.0	-31.6	-8.4	137.7	246.9	135.8
		센서뷰	-0.8	-20.6	-24.9	154.4	105.3	97.4
	전력장치 배터리 로봇	LG에너지솔루션	-3.4	-9.7	4.2	-10.2	31.6	8.6
		삼성SDI	-5.1	-14.3	34.8	75.0	208.4	100.0
		SK이노베이션	-7.7	-17.4	-12.8	-6.9	11.1	4.8
	로봇 플랫폼 완성 로봇	LG전자	-25.6	22.0	97.8	133.9	199.9	145.4
		레인보우로보틱스	-6.6	-27.0	-17.9	30.3	115.9	32.6
		두산로보틱스	-21.3	9.1	17.1	31.4	111.5	41.5
		로보티즈	3.0	-4.4	28.7	9.1	462.0	26.4
		유일로보틱스	-9.7	-15.4	-21.2	-16.0	7.9	0.4
	구동 감속기 기구부품	에스피지	-8.7	-29.9	-27.8	26.3	262.1	16.5
		에스비비테크	4.0	-39.4	19.9	55.3	187.8	73.2
	의료·산업용	고영	24.9	-5.4	30.7	47.5	149.4	71.0
	농업·드론	퍼스텍	-5.5	-39.4	6.6	97.2	89.3	101.0
소프트웨어 (Software)	멀티모달	NAVER	-3.3	21.1	11.3	1.0	24.2	1.9
	Robot OS	현대오토에버	-18.2	11.2	68.3	132.7	364.0	106.0
	Simulation	삼성에스디에스	-6.1	32.2	46.3	34.9	71.0	38.2
서비스 (Service)	구축 컨설팅	LG씨엔에스	-21.0	27.1	36.1	35.5	57.3	51.1
	물류자동화	현대무백스	18.3	-7.9	21.6	246.8	832.1	108.4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6/12 종가 기준

한국 Humanoid AI Robots 밸류체인 및 주요 종목

투자 관점에서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성형 로봇보다 반도체, 센서, 감속기, 제어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 기업에 우선 주목할 필요

한국의 Humanoid AI Robots 밸류체인은 완성형 로봇 기업보다 AI 반도체, 센서, 배터리, 구동계, 제어 소프트웨어 등 밸류체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용화가 확대될수록 특정 기업보다 핵심 부품과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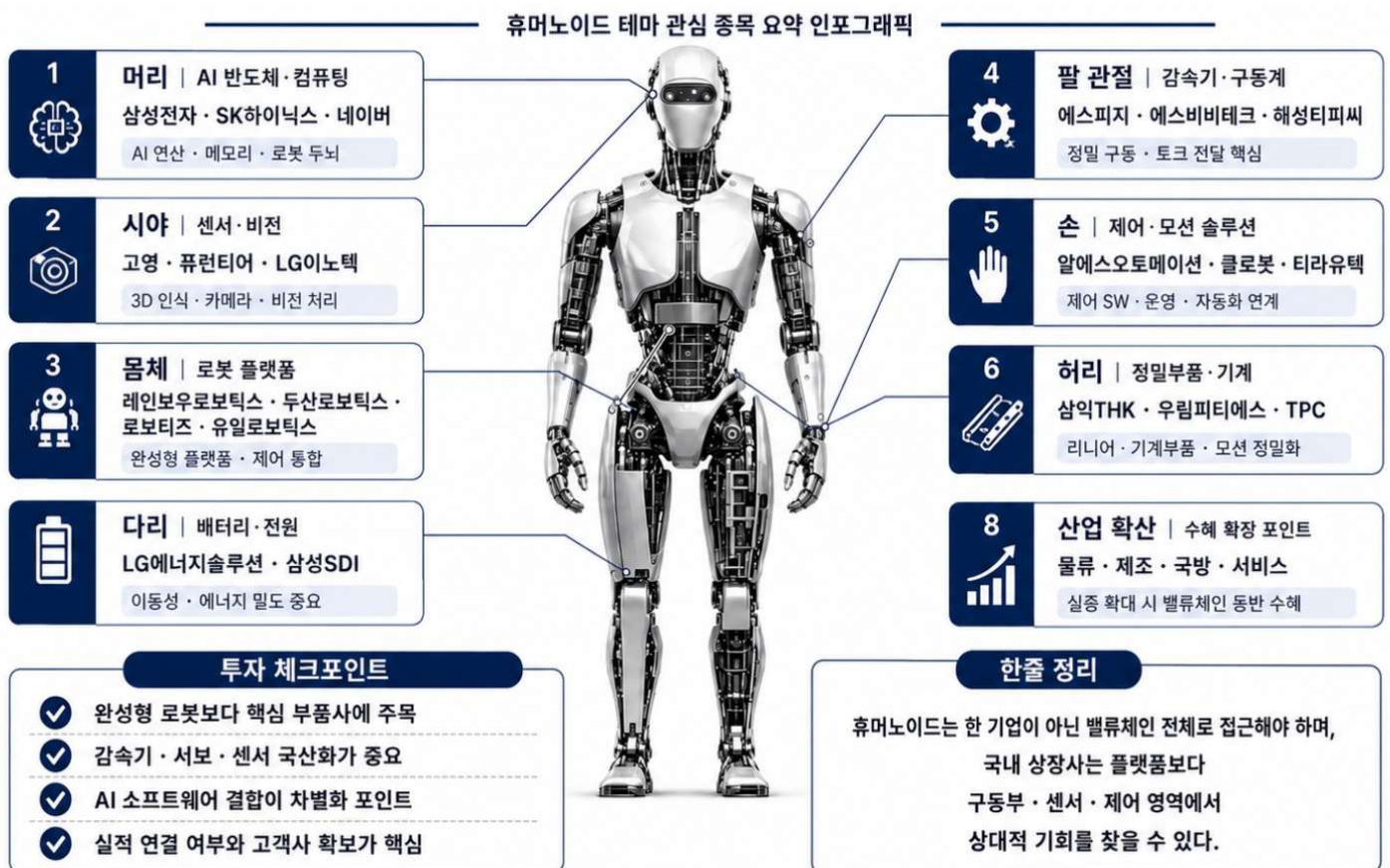
휴머노이드 로봇의 AI 연산과 로봇 두뇌 영역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NAVER 가 대표 관심 종목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AVER 는 AI 플랫폼과 로봇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센서·비전 분야에서는 고영, 퓨런티어, LG 이노텍이 주목된다. 이들 기업은 3D 비전, 카메라, 영상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의 시각 기능을 담당한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가 핵심 기업으로 평가된다.

로봇 플랫폼 분야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가 대표적이다. 구동계와 감속기 분야에서는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해성티피씨가 핵심 부품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제어·모션 솔루션 영역에서는 알에스오토메이션, 클로봇, 티라유텍이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운영 플랫폼을 제공한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성형 로봇보다 반도체, 센서, 감속기, 제어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 기업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물류, 제조, 국방, 서비스 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7] 한국 Humanoid AI Robots 밸류체인 및 주요 종목



※ 본 이미지는 산업 이해를 위한 참고용 요약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한국 Humanoid AI Robots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

AI 반도체, 메모리, 센서, 통신 부품 등 핵심 인프라 영역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

한국 Physical AI 관련 종목의 12 개월 선행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선도 기업 대비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난다. AI 컴퓨팅 분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대비 낮은 PER 과 높은 ROE 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반면 로봇 플랫폼과 완성로봇 기업들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과 유사하게 높은 성장 기대가 선반영되며 높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위치해 있다.

센서·통신 분야에서는 LG 이노텍, RFHIC 등이 글로벌 센서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배터리 부문 역시 글로벌 전력·배터리 기업과 비교해 일부 저평가 영역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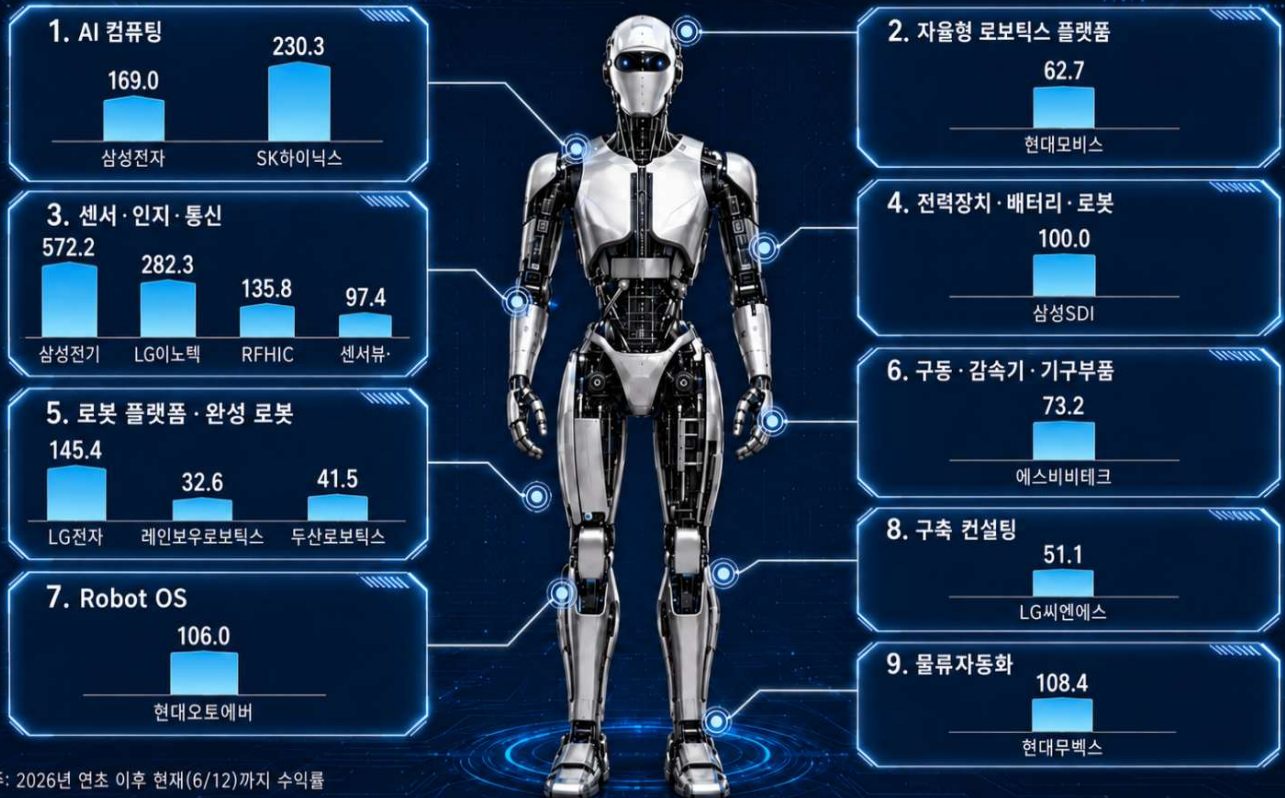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 AI 반도체, 메모리, 센서, 통신 부품 등 핵심 인프라 영역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 반면 휴머노이드 완성로봇과 플랫폼 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지만 실적 가시성 검증이 중요한 구간이다.

[표 4] 한국 Humanoid AI Robots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

부 문	구 분	종 목	시가총액 (십억원)	12개월 선행 (Fwd 12m)				비 고
				PER	PBR	PSR	ROE	
하드웨어 (Hardware)	AI 컴퓨팅	삼성전자	1,885,424.9	6.4	2.4	2.3	47.8	
		SK하이닉스	1,532,310.1	6.1	3.1	3.5	77.9	
	자율주행 로보틱스 플랫폼	현대차	124,288.0	14.7	1.2	0.6	8.9	
		현대모비스	55,074.7	12.5	1.0	0.8	8.3	
		HL만도	3,052.2	13.8	1.1	0.3	7.7	
	센서 인지 통신	삼성전기	128,025.0	76.6	11.0	8.3	15.6	
		LG이노텍	24,519.1	27.0	3.5	1.0	13.7	
		RFHIC	2,044.6	38.2	4.9	6.3	14.1	
		센서뷰	136.7	-	-	-	-	
	전력장치 배터리 로봇	LG에너지솔루션	93,600.0	174.9	4.6	2.5	2.6	
		삼성SDI	43,435.6	48.8	1.8	2.4	4.0	
		SK이노베이션	17,936.5	11.5	0.7	0.2	6.6	
	로봇 플랫폼 완성 로봇	LG전자	36,730.5	18.7	1.5	0.4	8.4	
		레인보우로보틱스	12,105.5	526.3	73.8	106.2	14.8	
		두산로보틱스	7,156.1	325.3	19.0	64.6	5.9	
		로보티즈	4,836.8	259.9	13.7	45.5	5.4	
		유일로보틱스	983.7	-	-	-	-	
	구동 감속기 기구부품	에스피지	2,100.2	112.5	7.5	5.5	6.8	
		에스비비테크	417.1	-404.7	29.1	27.9	-8.1	
	의료·산업용	고영	2,687.8	51.8	6.5	7.7	13.8	
	농업·드론	제노코	169.1	47.0	2.4	1.9	5.4	
소프트웨어 (Software)	멀티모달	NAVER	38,747.8	18.2	1.2	2.6	7.2	
	Robot OS	현대오토에버	18,758.0	77.4	8.9	3.5	11.9	
	Simulation	삼성에스디에스	18,338.5	23.2	1.7	1.2	7.5	
서비스 (Service)	구축 컨설팅	LG씨엔에스	8,991.0	17.2	2.6	1.3	16.1	
	물류자동화	현대무백스	4,360.4	256.5	23.3	8.1	9.6	

자료: Gminsights & Grandviewresearch,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로 재구성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주요 기업 주가 상승률



1. **삼성전자(005930)**: 삼성전자, 로봇 시대의 진짜 두뇌를 쥔 기업
2. **삼성전기(009150)**: 로봇 시대의 눈과 관절을 잡은 진짜 부품 대장주
3. **삼성 SDI(006400)**: 배터리주가 아니라 로봇 심장주로 봐야 하는 이유
4.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적자 로봇주인가, 삼성의 미래 병기인가?
5. **SK 하이닉스(000660)**: AI 로봇 시대의 진짜 대장 SK 하이닉스!
6. **LG 전자(066570)**: 엔비디아가 찍은 로봇 동맹 LG 전자
7. **LG 이노텍(011070)**: 기판 증설 순간 다 팔리는 회사 LG 이노텍
8. **LG 씨엔에스(064400)**: 로봇을 굴리는 AI 관제 대장주 LG 씨엔에스
9. **현대모비스(012330)**: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완전 변신한다
10. **현대오토에버(307950)**: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뒤의 진짜 수혜주는 이곳
11. **현대무백스(319400)**: 로봇보다 먼저 깔리는 자동화 대장주 현대무백스
12. **두산로보틱스(454910)**: 엔비디아가 찍은 두산로보틱스 반전주
13. **RFHIC(218410)**: 로봇 시대 RF 전력과 반도체 장비 수혜주
14. **에스비비테크(389500)**: 휴머노이드 관절주, 이제 감속기가 본 게임
15. **센서뷰(321370)**: 로봇의 눈과 통신선을 동시에 잡은 센서뷰



AI PERSONAL FINANCIAL ROBOT 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322,500 원
시가총액	1,885,424.9 십억
자본금	897.5 십억
발행주식수	5,846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75.9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370,000 원
52 주 최저가	56,9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74,472 억원
외국인 지분율	47.6 %

주가



005930 (KS)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 로봇 시대의 진짜 두뇌를 전 기업

- HBM 이 터졌다, 삼성전자 이익 체급이 바뀐다
- 로봇 시대, 진짜 돈은 몸통보다 두뇌 인프라다
- 중국 CXMT 공포,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호재다

HBM 이 터졌다, 삼성전자 이익 체급이 바뀐다

동사는 HBM4와 서버 D램, NAND 가격 급등을 동시에 흡수하는 구조적 업황의 중심에 있다. 2Q26E 영업이익률은 50%를 넘는 수준으로 단순 사이클 회복이 아닌 AI 서버 메모리 부족이 만든 초과이익 구간이다. 공급 증설이 장비 병목과 긴 팍 건설 기간에 묶인 만큼 이익 피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로봇 시대, 진짜 돈은 몸통보다 두뇌 인프라다

Physical AI Robots 투자포인트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연결 편입보다 더 넓다. HBM·CXL·온디바이스 AI·센서·디스플레이·전장 하만이 로봇 지능화의 연산, 저장, 인지, 구동 인프라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로봇 완제품보다 로봇용 AI 반도체와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동시에 전 플랫폼 기업으로 동사를 봐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CXMT 공포,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호재다

중국 CXMT 상장은 단기 D램 공급 우려를 자극하지만, HBM·DDR5·LPDDR5 등 고성능 영역에서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를 부각시키는 변수이다. 저가 레거시 경쟁보다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의 희소성과 글로벌 3사 중심 기술 장벽을 확인시키며, 동사 프리미엄 재평가를 이끄는 역설적 호재로 해석된다.

2분기 숫자가 말한다, 아직 실적 피크가 아니다

2Q26 전망은 매출 168.6 조원, 영업이익 87.3 조원, OPM 51.8%로 메모리 판가 상승과 반도체 레버리지가 본격화되는 구간이다. 전분기 대비 이익 개선 폭이 크고 컨센서스 상향 여지가 남아 있어 다시한번 재평가의 직접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3분기 100조원대 영업이익 진입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258,935.5	300,870.9	333,605.9	693,250.2	846,908.8
영업이익 (십억원)	6,567.0	32,726.0	43,601.1	358,629.0	469,333.7
영업이익률 (%)	2.5	10.9	13.1	51.7	55.4
순이익 (십억원)	14,473.4	33,621.4	44,261.0	292,382.4	379,087.7
EPS (원)	2,131	4,950	6,564	43,833	57,017
PER (배)	36.8	10.8	18.3	7.4	5.7
PBR (배)	1.5	0.9	1.9	3.0	2.0
ROE (%)	4.2	9.0	10.9	52.2	43.5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750611



AI PERSONAL FINANCIAL ROBOT 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009150 (KS) IT 하드웨어

삼성전기

로봇 시대의 눈과 관절을 잡은 진짜 부품 대장주

- AI 서버 전력난, MLCC 가 돈 찍는 병목이다
- 빅테크가 줄 서는 FC-BGA, 기판이 반도체를 이긴다
- 1.6 조 짝꿍, 실리콘 커패시터가 새 판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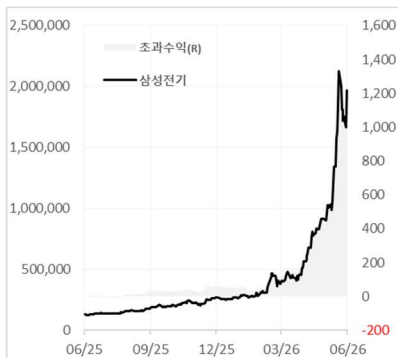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1,714,000 원
시가총액	128,025.0 십억
자본금	388.0 십억
발행주식수	75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73.5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2,192,000 원
52 주 최저가	124,0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1,928 억원
외국인 지분율	37.5 %

주가



AI 서버 전력난, MLCC 가 돈 찍는 병목이다

AI 서버용 MLCC 는 고용량·고신뢰성 요구가 높아 공급사가 제한적이다. 당사는 1Q26 컴포넌트 가동률 95%를 기록했고, AI 서버 물량이 범용 캐파까지 잠식하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전장·산업용 회복까지 겹치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니라 AI 전력 안정화 부품주로 재평가될 수 있으며, 수급 부족이 가격과 이익률을 동시에 밀어 올리는 구간에 들어섰다.

빅테크가 줄 서는 FC-BGA, 기판이 반도체를 이긴다

FC-BGA 는 AI 가속기의 하단 기판으로 면적·층수 확대가 동반되는 병목 부품이다. 당사는 북미 빅테크향 비중국 공급망 수혜와 추가 증설 가능성을 보유해 단순 기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주로 해석되며, 수요 초과 구간에서 판가와 선수금 협상력이 높아지며, 증설 공식화가 직접 재평가 촉매가 되는 구조에 들어섰다.

1.6 조 짝꿍, 실리콘 커패시터가 새 판을 연다

실리콘 커패시터 1.6 조원 수주는 2027~2028 년 실적에 반영될 신규 성장축이다. 당사는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에서 고부가 AI 패키징 부품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근거며, 향후 추가 고객 확보 시 MLCC 와 FC-BGA 에 이은 세 번째 AI 부품 축으로 이익 체질 변화가 진행된다.

2 분기부터 숫자가 터진다,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다

2Q26 은 매출 3.28 조원, 영업이익 3,814 억원, OPM 11.6%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7% 증가에 그치지만 영업이익은 79.0% 늘어 고부가 믹스와 고정비 레버리지가 확인되는 구간이다. 또한 3Q26 영업이익 4 천억원대 진입 가능성도 열려 있기에 실적주로 전환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8,892.4	10,294.1	11,314.5	13,408.8	16,085.6
영업이익 (십억원)	660.5	735.0	913.3	1,589.5	2,722.0
영업이익률 (%)	7.4	7.1	8.1	11.9	16.9
순이익 (십억원)	423.0	679.1	706.1	1,284.4	2,187.8
EPS (원)	5,450	8,752	9,099	16,551	28,193
PER (배)	28.1	14.2	28.0	103.6	60.8
PBR (배)	1.5	1.1	2.0	12.0	10.1
ROE (%)	5.5	8.2	7.7	12.7	18.6

자료: FnGuide(Quant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790227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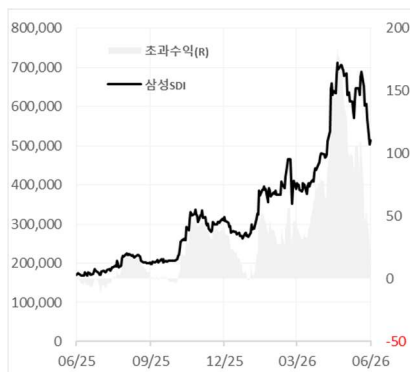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539,000 원
시가총액	43,435.6 십억
자본금	415.8 십억
발행주식수	81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72.0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723,000 원
52 주 최저가	165,9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4,660 억원
외국인 지분율	26.5 %

주가



006400 (KS) IT 가전

삼성 SDI

배터리주가 아니라 로봇 심장주로 봐야 하는 이유

- 휴머노이드 배터리 시장의 핵심 경쟁 축
- AI 데이터센터가 배터리 회사를 살린다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숨은 현금 폭탄

휴머노이드 배터리 시장의 핵심 경쟁 축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볍고 오래가며 불에 강한 배터리를 요구한다. 삼성 SDI의 전고체·고출력 원형 기술은 EV 부진을 넘어 Physical AI 시대 전원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핵심 축이다. 초기 매출은 작아도 적용처 확장성이 크고, 안전성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로 로봇 양산의 병목은 결국 배터리이며, 차세대 로봇 밸류체인을 출발점이 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배터리 회사를 살린다

AI 서버 전력난은 ESS와 BBU 수요를 동시에 키우는 변수이다. 삼성 SDI는 미국 ESS, UPS, BBU로 매출 믹스를 바꾸며 EV 의존도를 낮추고 AMPC까지 더해 이익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구간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직납 제품은 판가와 수익성도 높아 배터리주 재평가의 통로로 결국 전력 백업이 새 성장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숨은 현금 폭탄

삼성 SDI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은 단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주·증설·재무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다. 향후 지분 매각 현실화 시 차입 부담과 증자 우려를 낮추는 핵심 안전판이며, 공격적 ESS 전환 투자와 차세대 배터리 양산 비용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카드로 불황기 현금 조달력이 버틸 힘이자 경쟁력이다.

2분기 적자 축소가 진짜 신호다

2Q26은 매출 3.67조원, 영업손실 734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전분기 대비 적자가 크게 줄고 OPM도 -2.0%까지 개선된다. ESS·소형 회복과 AMPC 확대로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가늠할 분기이다. 주가는 적자 규모보다 회복 속도와 4분기 흑자 가시성이 중요하기에 숫자가 돌아서면 밸류에이션 논리도 바뀔 수 있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21,436.8	16,592.3	13,266.7	15,518.8	19,456.4
영업이익 (십억원)	1,545.5	273.5	-1,997.5	-36.5	1,452.2
영업이익률 (%)	7.2	1.6	-15.1	-0.2	7.5
순이익 (십억원)	2,009.2	599.3	-649.5	358.7	1,458.6
EPS (원)	27,788	8,288	-8,325	4,364	17,743
PER (배)	16.6	29.2	N/A(-32.4)	123.5	30.4
PBR (배)	1.7	0.8	1.0	1.9	1.8
ROE (%)	11.5	3.1	-3.2	1.6	6.3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790227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624,000 원
시가총액	12,105.5 십억
자본금	9.7 십억
발행주식수	19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54.0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979,000 원
52 주 최저가	249,5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350 억원
외국인 지분율	7.4 %

주가



277810 (KQ) 기계

레인보우로보틱스

적자 로봇주인가, 삼성의 미래 병기인가?

- 삼성이 찍은 로봇 심장, 아직 숫자는 시작도 안 했다
- 휴머노이드 관절을 직접 만드는 진짜 로봇주
- 공장·물류·순찰까지 깔리는 로봇 고속도로

삼성이 찍은 로봇 심장, 아직 숫자는 시작도 안 했다

삼성전자의 지배기업 편입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단순 협동로봇주에서 그룹 로봇 플랫폼으로 격상됐다. 1Q26 삼성전자향 매출 24 억원은 아직 작지만, 휴머노이드·AMR·자동화 실증이 양산 주문으로 연결될 경우 밸류에이션의 핵심 근거가 기대감에서 숫자로 바뀌는 초입이다. 따라서 향후 삼성 제조망 진입 여부가 최대 변수이며, Physical AI 프리미엄을 결정할 핵심 관문이다.

휴머노이드 관절을 직접 만드는 진짜 로봇주

동사의 강점은 이족보행에서 출발한 제어·구동·감속기 내재화이다. 한 팔 7 자유도 모바일 휴머노이드, 4 족보행, AMR 까지 연결되는 구조는 Physical AI 학습 데이터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드문 플랫폼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쥔 구조로 차별화 요인으로 작동한다.

공장·물류·순찰까지 깔리는 로봇 고속도로

동사의 협동로봇 3~20kg 라인업, RB5 연 2,500 대 생산능력, AMR 커스터마이징, RaaS 추진은 하드웨어 판매를 서비스형 자동화로 확장시키는 기반이다. 또한 SI 52 개사는 현장 침투 속도를 높이는 채널로 반복 수요 전환이 관건이다. 초기 레퍼런스가 수익성을 좌우하며 양산성도 극복해야 할 국면이다.

1Q26 년 실적, 매출 2 배 폭증, 그런데 적자는 더 커졌다

1Q26 매출은 전년 대비 116.7% 급증했으나 R&D 와 인건비 선반영으로 영업손실은 16 억원으로 확대됐다. 삼성향 매출 성장은 긍정적이나,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매출 레버리지 효과와 철저한 비용 통제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실적 숫자의 검증이 우선인 과도기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15.3	19.4	34.1	60.0	132.0
영업이익 (십억원)	-44.6	-3.0	-2.5	4.0	12.0
영업이익률 (%)	-292.2	-15.4	-7.3	6.7	9.1
순이익 (십억원)	-0.9	2.1	1.4	15.0	31.0
EPS (원)	-47	110	73	773	1,598
PER (배)	N/A(-3771)	1,478.1	6,421.1	807.0	390.5
PBR (배)	26.1	23.8	68.2	81.8	67.3
ROE (%)	-0.9	1.6	1.1	10.7	18.9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210203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000660 (KS) 반도체

SK 하이닉스

AI 로봇 시대의 진짜 대장 SK 하이닉스!

- GPU 보다 더 급한 로봇의 기억창고
- 로봇 두뇌가 커질수록 HBM 이 먼저 터진다
- 엔비디아가 줄 세운 메모리 독점 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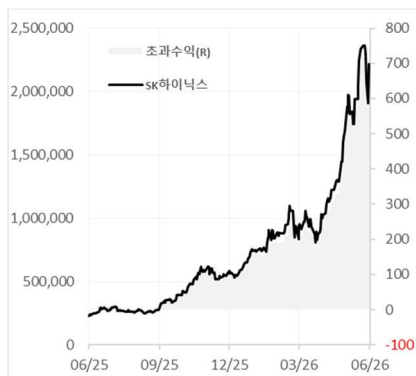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2,150,000 원
시가총액 1,532,310.1 십억
자본금 3,657.7 십억
발행주식수 713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74.6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2,407,000 원
52 주 최저가 233,75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77,047 억원
외국인 지분율 51.1 %

주가



GPU 보다 더 급한 로봇의 기억창고

피지컬 AI 로봇은 영상, 음성, 촉각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야 하므로 GPU 보다 더 많은 HBM 과 저지연 DRAM 을 요구한다. SK 하이닉스의 HBM 및 서버 D 램 지배력은 휴머노이드 양산기의 핵심 병목을 선점한 구조이다. 로봇이 공장, 물류, 방산으로 확산될수록 메모리 탑재량과 판가 프리미엄이 동시에 커지며 동사의 AI 메모리 가치도 재평가되는 구간이다.

로봇 두뇌가 커질수록 HBM 이 먼저 터진다

휴머노이드가 온디바이스 추론과 클라우드 학습을 동시에 확대하면 HBM, LPDDR5X, eSSD 수요가 함께 커진다. 동사는 엔비디아향 고성능 메모리 공급망의 중심에 있어 로봇 AI 확산의 직접 수혜주이다. 이는 로봇 두뇌가 커질수록 메모리 탑재량과 이익 민감도도 커지고, 판가 협상력도 높아지는 고마진 구조로 해석된다.

엔비디아가 줄 세운 메모리 독점 관문

엔비디아와의 다년 공동개발 및 공급 구도는 단순 납품을 넘어 차세대 AI 플랫폼 로드맵에 동행함을 의미한다. HBM4 와 LPDDR5X 가 로봇 및 엣지 AI 로 확산될수록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구조이다.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가 곧 기술 프리미엄과 장기 수익성 방어력으로 이어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2 분기 실적 전망도 괴물, 이익 폭발은 계속된다

2Q26 영업이익은 62.7 조원(YoY 581%, QoQ 67%)으로 급증하는 압도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AI 메모리 판가 상승과 HBM 및 낸드 제품 믹스 개선이 강력한 실적 레버리지로 연결된 결과이다. 이는 지난 1 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2 분기에도 확연히 확장되는 흐름을 증명하는 국면으로 전망된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32,765.7	66,193.0	97,146.7	340,171.8	477,857.6
영업이익 (십억원)	-7,730.3	23,467.3	47,206.3	259,777.7	365,859.0
영업이익률 (%)	-23.6	35.5	48.6	76.4	76.6
순이익 (십억원)	-9,112.4	19,788.7	42,919.3	215,538.4	292,341.2
EPS (원)	-12,517	27,182	58,955	301,732	410,187
PER (배)	N/A(-11.3)	6.4	11.0	7.1	5.2
PBR (배)	1.8	1.6	3.7	4.4	2.4
ROE (%)	-15.6	31.1	44.2	94.7	61.1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961226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066570 (KS) IT 가전

LG 전자

엔비디아가 찍은 로봇 동맹 LG 전자

- 로봇 관절까지 먹는 LG 전자 진짜 본체
- 베어로보틱스 품은 로봇주 재탄생
- 엔비디아가 찍은 피지컬 AI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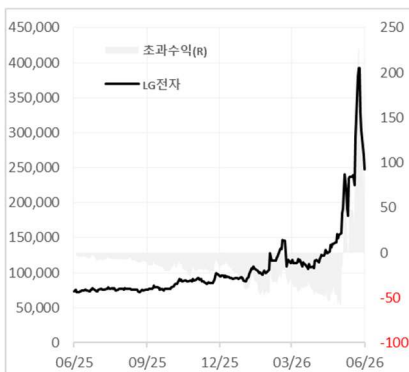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225,500 원
시가총액	36,730.5 십억
자본금	904.2 십억
발행주식수	163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64.3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438,000 원
52 주 최저가	70,6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5,634 억원
외국인 지분율	28.8 %

주가



로봇 관절까지 먹는 LG 전자 진짜 본체

LG 전자는 가전, 전장, 부품 역량을 모두 갖춘 드문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는 자사 상업용 로봇에 우선 적용된 후 외부 공급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완성 로봇보다 먼저 수익화가 가능한 관절 공급망을 확보하는 구조이며, 모터와 센서 기술이 결합되어 피지컬 AI 시대의 원가 병목을 해결할 핵심 축이다.

베어로보틱스 품은 로봇주 재탄생

베어로보틱스 인수와 로보스타, 로보티즈 지분은 LG 전자를 단순 가전주가 아닌 종합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변수이다. 서비스, 공장자동화, 홈로봇이 그룹 내에서 연결되고 제조 및 AI 역량이 결합되어 수직계열화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는 현재 로봇 매출이 작더라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다.

엔비디아가 찍은 피지컬 AI 동맹

피지컬 AI 로봇은 실제 공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학습이 핵심이다. LG 전자는 가전, 스마트홈, 전장, 제조 현장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월드모델 및 AI 팩토리 협업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LG 전자의 하드웨어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더욱 커지는 구조이다.

2분기 서프라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Q26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0% 증가한 9,976 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익 개선이 핵심이다. 전분기 대비 감익은 계절성과 고마진 효과 정상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꾸준한 마진 개선 흐름 속에 냉난방공조(HVAC) 성수기 진입, 관세 환급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수익성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구간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82,262.7	87,728.2	89,200.9	94,026.5	97,714.9
영업이익 (십억원)	3,653.3	3,419.7	2,478.4	3,856.8	4,318.4
영업이익률 (%)	4.4	3.9	2.8	4.1	4.4
순이익 (십억원)	712.9	367.5	960.6	1,955.3	2,396.9
EPS (원)	3,942	2,032	5,321	10,858	13,311
PER (배)	25.8	41.1	17.3	20.8	16.9
PBR (배)	0.9	0.7	0.7	1.6	1.4
ROE (%)	3.7	1.8	4.3	7.9	8.9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020422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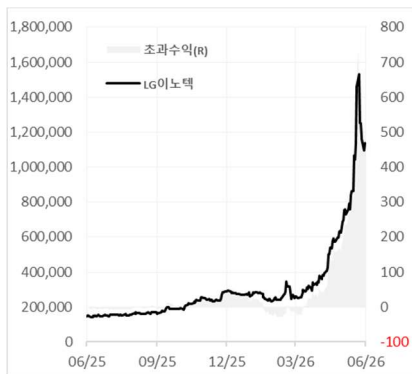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1,036,000 원
시가총액	24519.1 십억
자본금	1183 십억
발행주식수	24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592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1,788,000 원
52 주 최저가	140,1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3,360 억원
외국인 지분율	230 %

주가



011070 (KS) IT 하드웨어

LG 이노텍

기판 증설 순간 다 팔리는 회사 LG 이노텍

- 카메라가 아니라 로봇의 눈이다
- AI 기판 완판, 로봇 두뇌까지 먹는다
- 라이다·레이더로 피지컬 AI 센서 장악

카메라가 아니라 로봇의 눈이다

LG 이노텍의 광학솔루션은 스마트폰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산업자동화의 눈으로 확장되고 있다. 압도적인 카메라모듈 양산력과 에바(Aeva)와의 4D 라이다 협업은 피지컬 AI 가 현실 공간을 인식하는 핵심 부품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근거이다. 북미 고객사 의존도는 리스크이나, 로봇 눈 수요가 새로운 멀티플을 열어주는 구조이다.

AI 기판 완판, 로봇 두뇌까지 먹는다

FC-BGA 등 고부가 기판은 AI 서버와 로봇 엣지 컴퓨팅의 연산 병목을 해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베트남 공장 증설과 고객사 장기공급계약(LTA) 논의가 현실화되면 동사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탈피해 AI 두뇌 기판 공급망으로 체질이 개선된다. 증설 즉시 풀가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패키지 기판의 이익률 상승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이다.

라이다·레이더로 피지컬 AI 센서 장악

모터, 센서, 통신 모듈 역량에 에바 라이다 기술과 스마트 레이더시스템 지분이 결합되어 로봇의 인지 및 공간 판단 축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매출 비중은 작지만 피지컬 AI 확산 시 멀티센서 모듈 업체로 재평가될 잠재력이 크다. 이는 자동차와 로봇을 잇는 독점적 옵션이며, 향후 신규 수주로 이어질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2분기 숫자가 주가 재평가 방아쇠

2Q26 영업이익은 1,476 억원(OPM 3.0%)으로 전년 대비 흑자 구조가 급격히 개선되는 구간이다. 전통적인 광학 비수기임에도 기판 라인 풀가동과 북미 고객사향 판매 호조가 겹치며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3 분기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과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을 예고하는 강력한 선행 신호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20,605.3	21,200.8	21,896.6	24,304.6	25,762.3
영업이익 (십억원)	830.8	706.0	665.0	1,118.7	1,308.0
영업이익률 (%)	4.0	3.3	3.0	4.6	5.1
순이익 (십억원)	565.2	449.3	341.3	814.2	1,001.7
EPS (원)	23,881	18,983	14,419	34,403	42,326
PER (배)	10.0	8.5	18.8	30.1	24.5
PBR (배)	1.2	0.7	1.1	3.7	3.3
ROE (%)	12.6	8.9	6.1	13.2	14.2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080724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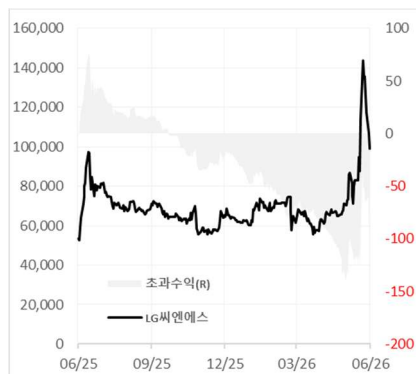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92,800 원
시가총액	8,991.0 십억
자본금	520 십억
발행주식수	97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49.7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153,300 원
52 주 최저가	54,1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717 억원
외국인 지분율	56 %

주가



064400 (KS) 소프트웨어

LG 씨엔에스

로봇을 굴리는 AI 관제 대장주 LG 씨엔에스

- 로봇공장 운영체제(OS)까지 확장 가능한 핵심 플랫폼
- 로봇 100 대 굴리면 비용이 터진다
- AI 박스 없으면 로봇도 멈춘다

로봇공장 운영체제(OS)까지 확장 가능한 핵심 플랫폼

LG CNS 는 '피지컬웍스'를 통해 로봇 도입의 데이터 수집, 학습, 운영, 관제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 로봇의 현장 투입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1~2 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까지 하나로 통합 관리한다.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로봇 현장 적용의 SI 및 운영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피지컬 AI 확산의 병목을 해결할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단계이다.

로봇 100 대 굴리면 비용이 터진다

피지컬웍스는 상이한 로봇 제어 체계를 단일 화면으로 통합하고 작업 배분과 동선을 최적화한다. 로봇 100 대 운용 시 생산성 15% 개선, 운영비 18% 절감 효과를 입증하며 스마트 물류와 제조 자동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퍼런스가 축적될수록 대외 로봇 전환 수주를 향한 확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AI 박스 없으면 로봇도 멈춘다

AI 박스는 GPU 576 장과 1.2MW 급 인프라를 컨테이너에 집약해 6 개월 내 구축 가능한 소형 AI 데이터센터이다. 로봇과 영상 AI 확산으로 추론 수요가 폭증할수록 동사의 인프라 가치는 더욱 부각된다. 데이터센터 DBO 역량에 그룹사의 냉각 및 배터리 기술 조합이 더해져 피지컬 AI 의 전력 병목을 해결할 차별화 요인이다.

2분기 숫자가 로봇주 불씨다

2Q26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 조 5,663 억원,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1,445 억원으로 전망된다. OPM 은 9.2%로 전분기 대비 2.1%p 개선되며 계절성 탈피와 실적 레버리지 회복이 확인되는 국면이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 32.3% 증가한 1,064 억원이 예상되는 안정적 분기이며 하반기 성장의 신호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5,605.3	5,982.6	6,129.5	6,630.6	7,239.1
영업이익 (십억원)	464.1	512.9	551.8	619.3	706.8
영업이익률 (%)	8.3	8.6	9.0	9.3	9.8
순이익 (십억원)	332.3	364.5	437.9	490.7	556.7
EPS (원)	3,811	4,180	4,548	5,065	5,746
PER (배)	-	-	13.5	18.3	16.2
PBR (배)	-	-	2.0	2.8	2.5
ROE (%)	19.1	18.3	17.4	15.9	16.2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250205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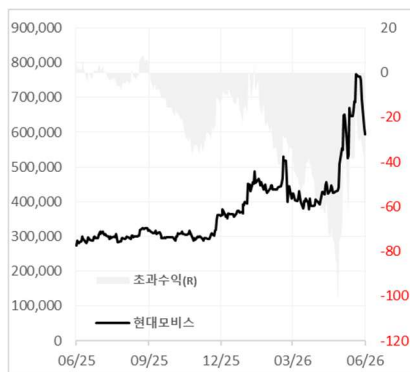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607,000 원
시가총액	55,074.7 십억
자본금	491.1 십억
발행주식수	91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65.0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822,000 원
52 주 최저가	277,5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3,659 억원
외국인 지분율	36.8 %

주가



012330 (KS) 자동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완전 변신한다

- 로봇 관절 핵심 부품 공급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업
- 현대차그룹 로봇 생태계의 숨은 본체
- 자동차 기술이 휴머노이드 해자로 바뀐다

로봇 관절 핵심 부품 공급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업

현대모비스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용 액추에이터 공동개발을 통해 로봇 관절의 원가 병목을 직접 해결하는 구조이며, 2028 년 35 만개 생산능력은 약 5 천억원대 매출로 환산되며, 완성 로봇보다 먼저 수익화가 가능한 핵심 부품주이다. 자동차 부품 양산 경험이 품질과 원가, 납기 신뢰성으로 전환되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이며 이제부터 휴머노이드 AI 로봇 성장 초입이다.

현대차그룹 로봇 생태계의 숨은 본체

현대차그룹은 제조, 물류, 부품, AI 를 묶어 로봇을 실제 공장에 투입하는 구조를 만든다. 동사는 액추에이터 표준화와 양산 설계를 맡아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내 관절 공급망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그룹 내 핵심 실행 주체라는 의미이며, 생태계 확장 시 지속적인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자동차 기술이 휴머노이드 해자로 바뀐다

차량용 제동, 조향, 전동화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계, 센서, 제어기와 맞닿아 있다. 동사의 10,000 여 건 특허와 대규모 R&D 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로봇 부품 내재화의 기술 방어벽이다. 안전 부품 양산 인증 경험이 로봇 신뢰성으로 확장되며 후발 주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실질적 해자로 작용한다.

2 분기 실적이 로봇 프리미엄을 증명한다

2Q26 영업이익은 9,133 억원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회복되는 구간이다. 고마진 A/S 와 모듈 물량 회복이 겹쳐 로봇 기대감과 본업의 기초체력이 동시에 증명되는 분기이다. 단기적으로는 마진 방어력과 순이익 개선 속도가 주가 향방을 결정하며, 향후 시장 컨센서스의 상향 여부가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변수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59,254.4	57,237.0	61,118.1	65,104.4	69,684.5
영업이익 (십억원)	2,295.3	3,073.5	3,357.5	3,712.8	4,261.1
영업이익률 (%)	3.9	5.4	5.5	5.7	6.1
순이익 (십억원)	3,422.6	4,055.6	3,655.8	4,109.0	4,676.5
EPS (원)	36,340	43,480	39,682	45,519	52,189
PER (배)	6.5	5.4	9.4	13.3	11.6
PBR (배)	0.5	0.5	0.7	1.0	0.9
ROE (%)	8.7	9.4	7.7	8.1	8.6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19890905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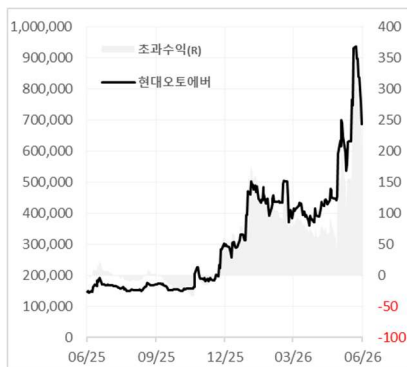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684,000 원
시가총액	18,758.0 십억
자본금	13.7 십억
발행주식수	27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245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1,066,000 원
52 주 최저가	140,7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461 억원
외국인 지분율	1.6 %

주가



307950 (KS)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에버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뒤의 진짜 수혜주는 이곳

-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로봇 운영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
- 대규모 GPU 인프라 확대가 여는 로봇 운영 인프라 기회
- 현대차 전 차종에 박힌 SW 방어벽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로봇 운영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

현대오토에버는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을 공장과 물류 데이터망에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전 배치될수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원격 관제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운영사 역할이 필수가 된다. 완성 휴머노이드 AI 로봇 기업의 뒤편에서 안정적인 플랫폼 인프라 매출을 거두는 핵심 투자처이다.

대규모 GPU 인프라 확대가 여는 로봇 운영 인프라 기회

새만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5 만 GPU 인프라와 로봇 공장 투자는 향후 그룹의 피지컬 AI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다. 동사는 클라우드와 ERP 시스템 등 전산망 운영을 전담해 로봇 인프라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제조 AI 시장이 커질수록 구축 및 운영 매출이 누적되는 장기 반복 수익 구조이다.

현대차 전 차종에 박힌 SW 방어벽

모빌진(mobilgene)은 현대차그룹 전 차종에 탑재되는 핵심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자율주행과 OTA 기능이 확대될수록 로봇과 자동차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주는 미들웨어 자산이 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확산이 곧 대당 과금 매출과 플랫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기술 해자로 작용된다.

2분기 실적이 다시 불 붙인다

2Q26 영업이익 전망치는 798 억원 수준으로 전분기의 실적 부진을 빠르게 회복하는 정상화 구간이다. 지난 1 분기에서 이연된 매출이 온전히 인식되고 시스템 단가 인상 효과가 겹치며 이익률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따라서 하반기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실적 확인 분기이자 주가 재평가의 근거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3,065.0	3,713.6	4,252.1	4,761.8	5,471.0
영업이익 (십억원)	181.4	224.4	255.3	278.2	370.0
영업이익률 (%)	5.9	6.0	6.0	5.8	6.8
순이익 (십억원)	137.8	170.8	182.5	208.5	276.2
EPS (원)	5,023	6,228	6,654	7,603	10,072
PER (배)	42.1	20.3	49.9	90.0	67.9
PBR (배)	3.7	2.0	4.9	9.3	8.4
ROE (%)	9.0	10.4	10.3	10.8	13.0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190328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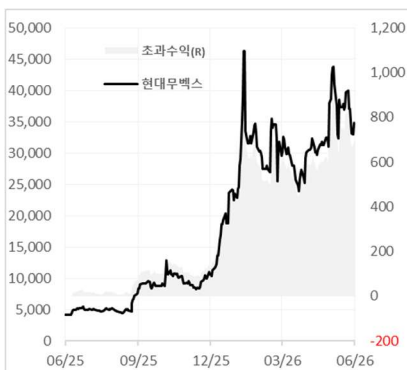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39,150 원
시가총액	4,360.4 십억
자본금	118 십억
발행주식수	111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49.7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50,400 원
52 주 최저가	4,035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031 억원
외국인 지분율	23 %

주가



319400 (KQ) 기계

현대무백스

로봇보다 먼저 깔리는 자동화 대장주 현대무백스

- 로봇 도입보다 먼저 수익화되는 공장 자동화 운영 인프라
- 타이어 공장까지 먹는 수출 로봇주
- PSD 사업이 제공하는 안정적 현금흐름 방어막

로봇 도입보다 먼저 수익화되는 공장 자동화 운영 인프라

피지컬 AI 가 공장에 적용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기술은 로봇의 이동과 경로를 제어하는 이송 지능이다. 현대무백스는 무인이송로봇(AGV/AMR)과 통합 제어 시스템을 묶어 설비 전반을 움직이는 구조를 갖췄다. 이는 단순히 로봇을 파는 제조사가 아니라 공장 운영권 자체를 공급하는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이다. 스마트팩토리 확산의 숨은 수혜주이자 인프라 기업이다.

타이어 공장까지 먹는 수출 로봇주

동사는 타이어, 배터리,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레퍼런스를 넓히며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낮췄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형 타이어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 단순 물류 자동화 기업에서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수출주로 재평가될 수 있다. 해외 수주 단위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되는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PSD 사업이 제공하는 안정적 현금흐름 방어막

지하철 스크린도어(PSD) 사업은 화려한 로봇 테마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지탱하는 강력한 방어막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50%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장기 유지보수 매출이 더해지며 물류 로봇 투자 사이클의 변동성을 완충하기에 성장주에서 보기 드문 방어적 수익 기반의 안전판이다.

1분기 적자 뒤에 숨은 수주잔고 폭탄

1Q26 실적은 매출 750 억원, 영업손실 6 억원으로 표면상 부진했으나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핵심 선행지표인 물류자동화 수주잔고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대규모 매출 전환에 따른 이익 회복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고마진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제품 믹스 개선 효과에 주목할 구간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267.8	341.4	393.9	464.0	563.0
영업이익 (십억원)	4.1	24.6	18.2	21.0	25.0
영업이익률 (%)	1.5	7.2	4.6	4.5	4.4
순이익 (십억원)	4.2	26.9	11.3	17.0	17.0
EPS (원)	36	229	99	153	153
PER (배)	94.2	14.8	190.3	256.5	256.5
PBR (배)	2.5	2.2	12.9	24.4	22.2
ROE (%)	2.7	16.2	6.8	10.1	9.2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190508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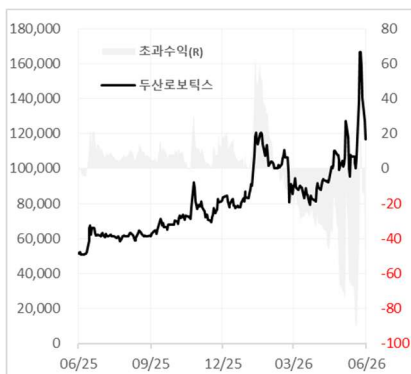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110,400 원
시가총액	7,156.1 십억
자본금	324 십억
발행주식수	65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500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170,000 원
52 주 최저가	49,9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703 억원
외국인 지분율	59 %

주가



454910 (KS) 기계

두산로보틱스

엔비디아가 찍은 두산로보틱스 반전주

- 협동로봇 제조사에서 로봇 AI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중
- 원엑시아(ONExia) 인수는 북미 공장 자동화 확장의 핵심 통로
- 스캔앤고(Scan&Go)가 휴머노이드의 전초기지

협동로봇 제조사에서 로봇 AI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중

두산로보틱스는 단순 협동로봇 제조사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AI) 실행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체 로봇 운영체제(O/S)와 엔비디아 인공지능 생태계의 결합은 로봇팔과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잇는 핵심 축이다. 당장의 매출 증명은 초기 단계이나, 기업의 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평가되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있다.

원엑시아(ONExia) 인수는 북미 공장 자동화 확장의 핵심 통로

ONExia 인수는 북미 자동화 수주를 로봇팔 판매로 연결하는 핵심 통로이다. 1 분기 자동화 솔루션 매출과 수주잔고는 단품 판매에서 시스템 전체를 납품하는 턴키 매출로 전환 중임을 보여준다. 신공장 가동 후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 북미 본업 정상화와 매출 회복 속도는 빨라지고, 이익 개선 가시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스캔앤고(Scan&Go)가 휴머노이드의 전초기지

스캔앤고, Dart-Suite, Isaac Sim·cuMotion 연동은 두산로보틱스가 단순 로봇팔이 아니라 작업 경로와 판단 SW 를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는 신호이다. 이는 제조 현장 특화 휴머노이드 전략의 출발점이며, 특허와 인증은 기술 방어력의 근거이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플랫폼 가치와 확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적자 로봇주, 1Q26 실적에서 반전 신호 났다

1Q26 매출은 1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6%, 전분기 대비 17.6% 증가하며 ONExia 연결 효과를 입증했다. GPM 은 28.3%로 급반등했지만, 판관비와 AI·북미 증설 비용 부담으로 영업손실은 지속됐다. 아직 흑자전환보다 외형 성장과 수익성 회복의 첫 신호가 확인된 분기이며, 수주잔고 전환이 다음 관전포인트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53.0	46.8	33.0	59.0	128.0
영업이익 (십억원)	-19.2	-41.2	-59.5	13.0	40.0
영업이익률 (%)	-36.1	-88.0	-180.3	22.0	31.3
순이익 (십억원)	-15.9	-36.6	-55.5	7.0	37.0
EPS (원)	-300	-564	-856	108	571
PER (배)	N/A(-387.1)	N/A(-92.7)	N/A(-91.1)	1,022.3	193.4
PBR (배)	17.2	8.4	14.5	20.1	18.1
ROE (%)	-6.6	-8.7	-14.8	2.0	9.8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231005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218410 (KQ) IT 하드웨어

RFHIC

로봇 시대 RF 전력과 반도체 장비 수혜주

- 로봇망 먹는 GaN 전력심장
- 드론전쟁 숨은 레이더 심장
- AI 칩 공장 뒤의 RF 장비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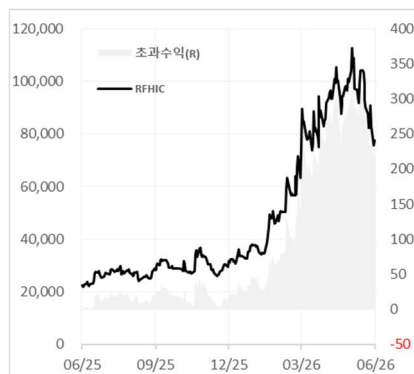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77,000 원
시가총액	2,044.6 십억
자본금	13.4 십억
발행주식수	27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62.2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126,900 원
52 주 최저가	21,7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533 억원
외국인 지분율	25.9 %

주가



로봇망 먹는 GaN 전력심장

RFHIC 의 GaN 전력증폭기는 5G SA-AI-RAN-6G 로 이어지는 로봇 전용 통신망의 전력 효율 병목을 겨냥한다. LDMOS 대비 효율·크기·전력 사용에서 우위가 있어 공장·물류 로봇이 대량 연결될수록 기지국 부품 가치가 더욱 커진다. 저지연, 고신뢰 무선망이 Physical AI 의 신경망이라면, 동사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 로봇망을 먹고 자라는 부품주이다.

드론전쟁 숨은 레이더 심장

레이더용 GaN PA 는 드론·무인체계·자율장비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RF 센서의 핵심 송신부이다. 동사의 레이더용 수주잔고와 Collins Aerospace 계약은 단순 통신주가 아니라 방산 로봇·항공 자율화 체인으로 확장되는 근거다. 전자전과 항공관제 현대화가 겹칠수록 동사의 중장기 매출 가시성이 더 뚜렷하게 높아지는 구조이다.

AI 칩 공장 뒤의 RF 장비 수혜

Microwave Generator 는 기존 마그네트론을 반도체 기반 정밀 RF 에너지로 대체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장비와 의료·가속기 수요가 확대되면 AI 칩 제조와 로봇 제조 자동화 뒤편에서 고출력 제어 부품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이는 Physical AI 확산의 제조 인프라를 파는 또 하나의 핵심 숨은 장비 체인이다.

2분기 실적이 다시 불 붙인다

2Q26 시장 전망은 매출 600 억원, 영업이익 122 억원, OPM 20.4%로 1 분기보다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간이다. 방산·광통신 수주가 먼저 실적을 밀고, 하반기 통신 회복 기대가 붙으면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 단기 주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속도와 이익률 유지력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111.4	114.9	185.8	261.6	348.3
영업이익 (십억원)	0.3	1.5	30.9	54.2	81.1
영업이익률 (%)	0.3	1.3	16.6	20.7	23.3
순이익 (십억원)	17.4	25.7	28.7	44.2	62.8
EPS (원)	652	969	1,082	1,665	2,365
PER (배)	27.7	13.5	30.2	46.3	32.6
PBR (배)	1.6	1.1	2.4	5.2	4.6
ROE (%)	6.2	8.6	8.8	12.4	15.8

자료: FnGuide(Quant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150630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389500 (KQ) 기계

에스비비테크

휴머노이드 관절주, 이제 감속기가 본 게임

- AI 로봇 관절 전쟁, 여기가 진짜 병목이다
- 로봇이 움직일수록 관절값이 뛴다
- 방산까지 붙은 로봇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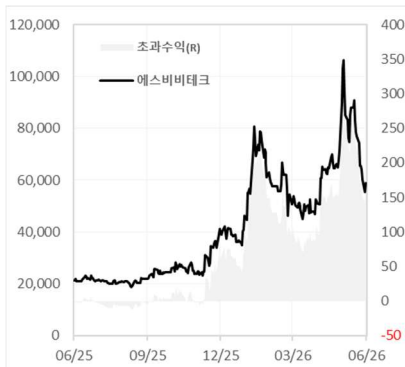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62,600 원
시가총액	417.1 십억
자본금	32 십억
발행주식수	7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57.7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115,000 원
52 주 최저가	18,60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184 억원
외국인 지분율	73 %

주가



AI 로봇 관절 전쟁, 여기가 진짜 병목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관절 부품이 먼저 병목으로 작용한다. 에스비비테크는 하모닉 감속기와 특수 베어링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 액추에이터 모듈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대기업형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한 만큼 향후 수율과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면 완성 로봇보다 먼저 수익을 거두는 핵심 부품 축이 된다.

로봇이 움직일수록 관절값이 뛴다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정밀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상품성이 없다. 동사는 감속기 단품을 넘어 구동장치 전체로 제품군을 늘리며 부품 단가와 고객사 결합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는 로봇 설계에 한 번 진입하면 쉽게 바꾸지 못하는 구조적 진입장벽 포인트이며, 로봇 양산 시대의 실속형 핵심 관절 축이다.

방산까지 붙은 로봇 부품주

방위산업은 까다로운 인증을 거치기에 한 번 채택되면 장기 공급이 보장되는 고신뢰성 시장이다. K9 자주포 관련 납품 등의 프로젝트 확대는 변동성이 큰 로봇 테마 속에서 실적의 중심을 잡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이다. 이는 본격적인 로봇 매출이 터지기 전까지 회사의 실적 바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2 분기, 적자주가 흑자주로 바뀌는 신호

2Q26E 매출은 29 억원, 영업손실은 3 억원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진다. 매출은 전년 대비 57.6%, 전분기 대비 63.8% 증가해 감속기 매출 인식의 첫 실적 확인 구간이다. 2 분기는 적자 축소 속도가 주가의 핵심 검증 변수이며, 흑자전환 기대를 앞당기는 분기 신호로 볼 수 있는 진짜 실적 검증 국면으로 작용한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5.1	5.5	7.2	11.0	16.3
영업이익 (십억원)	-5.6	-6.9	-6.9	-2.4	-0.4
영업이익률 (%)	-108.6	-126.0	-95.3	-21.8	-2.5
순이익 (십억원)	-11.0	-0.9	-9.5	-2.2	0.2
EPS (원)	-1,784	-145	-1,503	-332	23
PER (배)	N/A(-22.1)	N/A(-123.9)	N/A(-24.1)	N/A(-188.5)	2,780.9
PBR (배)	20.3	8.8	18.3	32.1	26.6
ROE (%)	-65.4	-7.6	-76.7	-17.3	1.1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221017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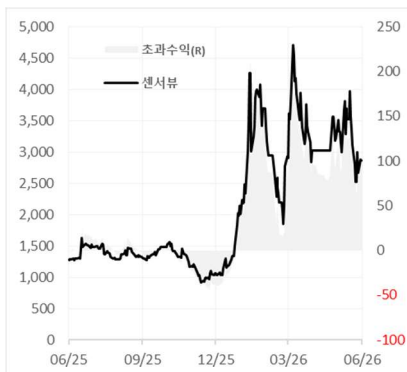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6/12 일)	2,675 원
시가총액	138.2 십억
자본금	226 십억
발행주식수	52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81.4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5,297 원
52 주 최저가	897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219 억원
외국인 지분율	21 %

주가



321370 (KQ) IT 하드웨어

센서뷰

로봇의 눈과 통신선을 동시에 잡은 센서뷰

- 로봇 신경망 인프라를 공급하는 부품주
- 군사용 로봇 센서·통신망 수혜가 기대
- 로봇 두뇌 인프라와 연결되는 초고속 케이블 수혜주

로봇 신경망 인프라를 공급하는 부품주

센서뷰는 로봇 제조사는 아니지만 로봇의 전장, 자율주행 레이더, AI 서버를 연결하는 초고속주파수 부품을 공급한다. 방산과 데이터센터가 모두 데이터 신호 손실과 발열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피지컬 AI 로봇 시대에는 하드웨어보다 먼저 구축되는 핵심 배선 인프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즉 로봇의 외형이 아니라 핵심 신경망을 공급하는 숨은 수혜주이다.

군사용 로봇 센서·통신망 수혜가 기대

동사는 천궁-II 등 방산 무기 납품으로 쌓은 신뢰성은 무인 로봇 전쟁 시대의 경쟁력이다. 그리고 안테나와 케이블이 양산되면 K-방산 로봇의 표준 플랫폼으로 도약한다. 이는 군사용 로봇의 눈과 통신망을 잡는 구조이며, 현재 쌓여있는 수주잔고는 향후 실적의 근거로 작용될 전망이다.

로봇 두뇌 인프라와 연결되는 초고속 케이블 수혜주

고성능 케이블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는 부품이기에 로봇 AI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할수록 고속 연결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동사는 휴머노이드 AI 로봇 두뇌 인프라를 겨냥한 간접 수혜주로, 고가 제품의 국산화 성공 후 본격 양산 전환하면, 주가 재평가의 시간이 올 전망이다.

적자 실적 속 진짜 시험대

1 분기 매출은 줄었으나 제품 자체의 마진율은 44.5%까지 개선됐다. 다만 R&D와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 중이다.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로 찍히는지 올 해의 핵심 변수이며, 지금은 흑자 전환보다 매출 회복과 비용 통제력을 검증해야 할 구간이다.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십억원)	4.6	5.6	8.5	15.6	19.0
영업이익 (십억원)	-9.6	-15.7	-18.0	-15.8	-11.6
영업이익률 (%)	-207.6	-279.7	-213.2	-101.2	-60.8
순이익 (십억원)	-15.2	-12.7	-18.3	-17.8	-15.2
EPS (원)	-716	-531	-647	-568	-352
PER (배)	-	-	N/A(-5.3)	N/A(-2.8)	N/A(-3.7)
PBR (배)	-	-	8.1	3.6	4.6
ROE (%)	자본잠식	자본잠식	-130.3	-107.7	-94.4

자료: FnGuide(Quantiwise),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230719

[투자의견 (변동) 내역]

종 목 명	일시/투자의견	2026. 06. 02	2026. 06. 15		
삼성전자(005930)	투자의견	-	Not rated		
삼성전기(009150)	투자의견	-	Not rated		
삼성 SDI(006400)	투자의견	-	Not rated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투자의견	-	Not rated		
SK 하이닉스(000660)	투자의견	-	Not rated		
LG 전자(066570)	투자의견	-	Not rated		
LG 이노텍(011070)	투자의견	-	Not rated		
LG 씨엔에스(064400)	투자의견	-	Not rated		
현대모비스(012330)	투자의견	-	Not rated		
현대오토에버(307950)	투자의견	-	Not rated		
현대무백스(319400)	투자의견	-	Not rated		
두산로보틱스(454910)	투자의견	-	Not rated		
RFHIC(218410)	투자의견	-	Not rated		
에스비비테크(389500)	투자의견	-	Not rated		
센서뷰(321370)	투자의견	Not rated	Not rated		

[투자의견 (변동) 내역]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 ~ +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목표주가를 산정하지 않을 시에는 투자의견을 "Not Rated"로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Analyst 김영진

현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